

2015年 2月
碩士學位論文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朝鮮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정 문 령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and Counterplan of
FTA between Korea and China

2014年 2月 25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정 문 령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朴魯慶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申請論文으로 提出함

2014年 10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정문령

정문령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委員長 조선대학교 교수 이재홍 (인)

委 員 조선대학교 교수 송윤아 (인)

委 員 조선대학교 교수 박노경 (인)

2014年 11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목 차

ABSTRACT	vi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2
제2장 한·중 FTA 추진 배경과 필요성	4
제1절 한중 FTA의 일반적 이론	4
1. FTA의 개념	4
2. FTA의 유형	6
3. FTA의 일반적 체결요건	8
4. FTA와 WTO 의 차이점	9
제2절 한·중 FTA 체결현황과 필요성	9
1. 한·중 FTA 체결현황	9
2. 한국 FTA 체결현황	11
3. 중국 FTA 체결현황	14
제3절 한중 FTA의 필요성	15

1. 경제적 측면	15
2. 정치 외교적 측면	19
제3장 한·중 FTA에 관한 양국의 전략과 입장 ..	22
제1절 한중 FTA에 관한 논의동향	22
1. 한중 FTA에 관한 양국의 시각	22
2. 한중 FTA의 논의경과	24
3. 한중 FTA 협상타결을 위한 과제	27
제2절 한중 FTA에 관한 양국의 전략 비교	29
1. 중국의 FTA 추진배경과 목표	29
2. 한중 FTA에 관한 중국의 전략	32
2. 한중 FTA에 관한 한국의 전략	34
제3절 한중 FTA에 관한 양국의 입장	36
1. 중국의 입장	36
2. 한국의 입장	38
3. 양국 입장차이 비교 분석	40
제4장 한·중 FTA가 양국에 미치는 영향	42
제1절 일반무역에 대한 영향	42

제2절 농업에 대한 영향	43
제3절 투자에 대한 영향	43
제5장 FTA 체결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및 대응 방안	46
제1절 한중 FTA 체결 내용	46
1. 상품분야	46
2. 상품 관련 규범분야	50
3. 서비스 및 투자분야	51
4. 규범 및 협력분야	52
제2절 양국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53
1.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53
2. 중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55
제3절 FTA 체결에 따른 양국의 대응 방안	58
1. 중국의 대응 방안	58
2. 한국의 대응 방안	60
제6장 결론	63

참고문헌 64

기타 참고문헌 및 홈페이지 자료 66

표 목 차

<표 1> 자유무역협정의 유형	6
<표 2> 수교 이후 한중 교역액 증가 추이 비교	10
<표 3> 한중 FTA 추진 과정	10
<표 4> 한국 FTA 체결 현황 요약	11
<표 5> 중국의 주요 FTA 체결 현황 요약	14
<표 6> 한중 FTA 논의경과	25
<표 7> 한중 FTA에 대한 양국의 전략비교요약	35
<표 8> 중국과 미국의 GDP 및 민간소비 규모 전망	39
<표 9> 한중 FTA 대한 입장 차이 비교요약	41
<표10> 한국의 산업별 중국에 대한 수출입 변화율	42
<표11> 관세감축 대상에서 쌀을 제외했을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	43
<표12> 한중 투자 교류 현황	44
<표13> 한·중 FTA 한국측 농산물 양허결과	47
<표14> 한·중 FTA 중국 농산물 양허결과	49

그림 목 차

<그림 1> 높아지는 한국의 대중 교역 의존도	38
---------------------------------	----

ABSTRACT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and Counterplan of FTA between Korea and China

Ding Wenling

Advisor : Prof. Park Ro-Kyung Ph.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2014, China and South Korea has celebrated the 22nd anniversary of the diplomatic relations. China and Korea ,in the past 22 years, has established the rapid development of all the field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so on. In 1979,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up, China's small and medium-sized trade began to recover. In twentieth Century, officially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the case of 80 times has not yet started. The scale of trade has increased. As the two countries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stitutional, physical environment, the economic exchanges greatly improv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after 22 years later, now the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very large, therefore,

the economies of the two countries formed the interdependence between high level. Especially, after China entered into WTO in 2001, Chinese government takes a more positive attitude to promote FTA. In 2005, Chinese government proposed "actively participate i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strategy". According to this strategy China has signed FTA with ASEAN, Chile, New Zealand, Singapore, Peru ect. China-Korea FTA "business · government · academics" joint research started from 2007. At last, in November 2014, FTA was signed between two presidents. China-Korea FTA is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the basis of close economic cooperation of Northeast Asia, and the formation is to promote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structure closely and substantial economic integration. At the same time, part of a long-term system integration and justice of the 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is pursued. In addition, China-Korea FTA to comprehensively promote the strategic partnership of cooperation is to promote the cooperation in perspective. From this point of view, FTA between two countries has evoked the very high interest and echo to the world countries.

Through China-Korea FTA, the abolition of trade barriers will improve the trade environment and business environment. And also it ensures the economic growth, direct investment and economic effect of safety with increasing export markets in the region. China's high economic growth and the mass market will induce the Korea's high economic growth.

The counterplan to the China and Korea for the FTA is as follow. China's counterplan by government and companies should be focused on the automotive, steel, and textile industries. First, China should introduce the aggressive and differentiated FDI policy according to the individual country differently, especially, for Korea, the entry

strategy after absorbing the high level technology to the Korea market should be considered.

Second, in the field of steel industry, the previous products which has already shown the high market share in Korea should be expanded. and also,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with the stable supply chai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ird, to enhance the competitive position, China's textile industry should focus on the industrial textile which will be expected to the rapid increase. That is to say, technology intensive textile industry instead of labour intensive industry are strongly recommended.

Korea's counterplan should be focused on the agricultur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First, in the field of agricultural industry, Korea should introduce the technology intensive gardening and fruit tree business instead of labour intensive rice farming. Second, Korea's manufacturing industry should consider the restructuring the industry which will not be competitive compared to the China's same industry. Therefore, the securing policy of source and core technologies by adopting the R&D investment expansion, high valued products, new production mechanism and training of high leveled labour force should be introduced. Third,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should understand that the service trade liberalization will induce the two countries' competition power of service field. Therefore,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widen the service level and depth, Korea and China should introduce the aggressive service liberalization.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세계경제는 세계화와 지역경제통합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가운데 지역경제통합은 자유무역지대 혹은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경제공동체, 경제연합 등 다양한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FTA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21세기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그 동안 다자주의에 치중하던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전환기를 맞아 FTA 추진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며, 동북아 주요 국가들도 FTA 추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중국은 중·한 FTA를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핵심적 기제로서 중요하고 있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래의 안정적 성장 동력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요성이 크게 부상함에 따라 중국이 중·한 FTA를 중시하는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¹⁾.

2013년에 들어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최대 무역국의 지위를 차지했다. 중국 시장이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모든 사람의 관심아래 중국은 1978년 12월에 들어서 개혁개방 정책을 택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개혁개방 전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9.6%에 도달하였으며, 세계의 강국이 되기에는 손색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2012년에 이르러 중국의 무역총액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랐으며, 이로 인해 다시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2013년에 이르러서는 미국을 초월한 세계 1위에 오르게 되었으며 세계 모든 사람들의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중국과 한국은 이웃나라로서 1992년 한중수교가 맺어지면서부터 양국 간에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문화 방면의 협력도 점점 심화되었다. 2012년 기준에 따르면 한중 쌍무무역 총액은 2,151억 달러에 달하였고, 한중무역액은 한국 총 대외무역의 20.1%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고 한국도 중국의 제6대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 2014년에 들어 한국은 중국 수입시장의 점유율이 9.24%

1) 진희(2014), 「중·한 FTA 추진현황과 전략」, 배재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학과, 석사논문, p.1. 참조

로 상승되어 이미 중국의 최대수입국이 되었다. 한중 상대무역은 양국에게 그 무엇에 비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양국 간의 FTA 체결에 대한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결국 2012 년에 이르러 한중양국은 공식적으로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다.

FTA 는 2000 년에 들어 더욱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WTO 와 같이 세계경제활동의 대세가 되었다. 특히 이런 흐름에 비교적 뒤처져 있던 아시아 지역에서도 최근 FTA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는 한중일 3 대 경제 강국 간의 FTA 논의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이미 아세안(ASEAN), 칠레(Chile), 파키스탄(Pakistan), 싱가포르(Singapore), 뉴질랜드(New Zealand), 페루(Peru), 아이슬란드(Iceland), 코스타리카(Costa Riga), 스위스(Switzerland) 와 FTA 를 체결한 바 있다. 한국도 이미 칠레(Chile), 싱가포르(Singapore), 유럽자유무역연합(EU), 아세안(ASEAN), 미국(USA) 등 국가와 FTA 를 체결했다. 한중 FTA 체결은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해 심원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한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시사점들을 고찰하여, 향후 중·한 FTA에 대한 논의를 위한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 FTA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이 가져올 거시적인 효과를 추정하여 경제적 이익의 규모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한 FTA 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기본적으로 한·중 FTA와 관련된 기존 연구 결과를 이용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기존에 발표된 각종 자료와 논문을 토대로 하여 이론과 현황을 정리하고, FTA 체결과 관련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현황을 분석한다. 나아가 양국의 FTA 추진 전략과 주요 장애요인을 점검하고, 양국 간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분석과 함께 FTA 추진 방안을 연구하는데 본 논문의 중점이 두어져 있다.

연구의 기본이 될 자료의 경우, 국회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협회,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서적, 학술지, 기타 간행물

2) 손조군(2014), 「한·중 FTA 협상성공전략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국제무역학과, 석사 논문, p.1.

에 수록된 자료와 공공기관의 통계자료 및 각종계획서, 업무보고서와 자유무역협정 등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연구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2장에서는 우선 한중 FTA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한중 FTA에 대한 양국의 전략과 입장에 대해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한·중 FTA가 양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5장에서는 FTA 체결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였으며 6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제2장 한중 FTA 추진 배경과 필요성

제1절 한중 FTA의 일반적 이론

1. FTA의 개념

FTA란 당사국 사이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관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협정 또는 조약이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은 관세동맹 등과 더불어 지역무역 협정(RTA)³⁾의 일종이며, 경제통합⁴⁾의 형태인 동시에 지역주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 사이의 무역을 저해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거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일반적인 내용은 당사국의 상품무역에 관한 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의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많은 자유무역협정은 기존의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 이외에도 서비스와 투자는 물론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규정을 포함한다⁵⁾. 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노동기준 및 환경 등 새로운 분야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

FTA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다. 관세를 갑작스럽게 완전히 철폐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는 관세 철폐 이행 기간을 5년, 10년 또는 15년까지 설정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FTA가 관세철폐 예외 품목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의 경우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예외 품목으로 설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FTA 체결로 인한 무역상의 특혜는 협정 체결국에서 생산한 상품에만 적용된다. 따

3)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地域貿易協定.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 간에 체결하는 지역간 경제통합을 말한다.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관세 등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보다는 느슨한 형태다.

4) 경제통합, economic integration.경제력이 비슷한 지위에 있는 국가들이 그들의 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그들 간에 놓여 있는 최적경제활동의 인위적인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그들 간의 존속과 발전에 필요한 조정과 통합의 모든 요소를 의식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그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경제권을 만들어 내는 것을 경제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5) 丁斗(2001), 「東北亞地區的次區域合作」, 北京大學出版社, p.282.

라서 역외국이 FTA 체결국 중 한 국가에 수출을 할 경우, 그 수출 대상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우회 수출하여 관세 상의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상품의 원산지가 어디에 따라 관세 및 무역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은 FTA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상품무역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금융, 통신, 교육, 의료, 시청각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에서도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협상 당사국간 서비스무역 활성화를 꾀한다.

FTA 협상의 투자 분야에서는 상대국에게 투자 시장을 개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규제들을 완화하여 양국 간 투자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 정부조달 시장은 매우 규모가 큰 투자가 될 수 있으나 여러 장벽으로 인해 국내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쉽다. FTA는 협상 당사국끼리의 정부조달 시장을 일부 또는 완전 개방함으로써 양국에게 실질적 투자의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자국 물품이 외국에서 아무런 특허권이나 상품권 등 지재권이 보호되지 않고 도용되거나 위조된다면 아무리 수출이 잘 되어도 소용이 없다. FTA에서 지식재산권 분야가 빠질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FTA 당사국끼리는 세이프가드⁶⁾ 및 반덤핑 조치⁷⁾를 상호 면제토록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관세 이외의 다른 무역 장벽을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기술 규정 및 표준,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 및 검역 절차, 통관절차, 외환규제, 국영무역의 존재 및 선적 전 검사 등이 포함된다.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은 물품의 기술적 효율성 및 적합성을 충족하는지를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안전 및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존재한다. 그러나 각 국가는 기술규정 및 표준(standards)에 관하여 독자적인 제도를 수립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표준제도가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 및 표준조치규정을 수입품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무역장벽으로 존재할 수 있다⁸⁾.

이에 FTA 협상에서는 각 당사국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 및 표준조치규정과 적합성 판정절차를 인정하되 이것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무와 제

6) 세이프가드: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 제한 조치.

7) 반덤핑 조치: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이다. 이때 덤핑 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한다. 어떤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어 수입국가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8) 손조군(2014), 「전계논문」, pp. 4-6.

한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하게 된다. 위생 및 검역 조치(Sanitary and Quarantine Measures)는 인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자국의 위생 및 검역 조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 있는 회원국들을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FTA 당사국끼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WTO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FTA 협정문대로 해결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다.

2. FTA의 유형

일반적으로 인접국가 사이에 관세 등이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무역을 확대하였던 초기 자유무역협정에서 발전하여, 인접국이 아닌 국가 사이에서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즉, 어느 국가가 경제적상호보완성에 따라 인접국가 아닌 다른 지역협력체에 속하는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지역협력체 자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경우도 나타난 것이다. 심지어는 지역협력체 사이의 자유무역협정도 등장하게 되었다. 자유무역협정의 유형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⁹⁾.

<표 1> 자유무역협정의 유형

유형	특징
국가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국가들이 협정 체결의 당사자 국가 간 시장의 확대 또는 무역진출의 발관마련 자유무역협정의 기본형태
국가와 지역협력체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국가와 지역협력체가 협정 체결의 당사자 해당 지역협력체에 당사국이 편입되거나 상대방의 시장에 진출 칠레와 MERCOSUR의 자유무역협정과 멕시코와 EU의 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

9) 고준성(2003),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서울, 법무부, p.88.

지역협력체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지역협력체들이 협정 체결이 당사자 지역협력체 사이의 통합 NAFTA또는 MERCOSUR와 EU의 자유무역협정의대표적
---------------------	---

자료: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서울: 인텔에듀케이션), 2004,p.3.

첫째, 국가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또는 복수국 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관세 등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당사국의 이익을 도모한다. 이러한 경우가 자유무역협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당사국이 인접하거나 동일한 지역협력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무역장벽의 제거로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상대국이 인접하지않거나 다른 지역협력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주요한 목적이 상대국이 속한 지역협력체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중에서 한. 칠레 FTA, 한. MFTA 등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예이며, 복수국간 자유무역협정의 형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인 NAFTA가 대표적이다.

둘째, 국가와 지역협력체 사이에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가능하다.만일 어느 지역협력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그 지역협력체에 인접한 경우, 자유무역협정은 해당 국가가 협정을 체결하는 상대방 지역 협력체에 편입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칠레와 MERCOSUR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 국가와 지역협력체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와 EU의 자유무역협정과 같이 인접하지 않은 국가와 지역협력체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상대방 지역협력체에 경제적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나 국가와 지역협력체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지역협력체 사이의 자유무역협정도 체결될 수 있다.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기존의 지역협력체가 보다 큰 규모로 성장할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지역주의가 발전하여 다자주의로 수렴할 수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NAFTA와 MERCOSUR사이의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MERCOSUR와 EU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다¹⁰⁾.

10) 영호(2013), 「한중 FTA 체결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논문, p.5.

3. FTA의 일반적 체결요건

크루그만의 주장이 발표된 이후 FTA의 체결 가능성과 후생효과에 대한 분석은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되고 있는데 이것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FTA 체결에 다른 순수 후생효과는 국가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증대되며, 거리가 가까운 국가일수록 FTA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두 국가가 국경을 접하거나 동일한 대륙에 위치할수록 관세철폐에 따른 효용증대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되므로 근접한 국가 간에 FTA가 체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둘째, 양국의 경제규모가 크고 크기가 비슷할수록 FTA의 순수 후생증진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며 FTA의 추진 가능성도 높아진다.

셋째, FTA 체결 당사국을 제외한 주변국의 경제규모가 작을수록 FTA의 순수 후생증진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FTA의 추진 가능성도 높아진다.

넷째, FTA 추진 당사국간 요소부존비율의 차이가 클수록 FTA의 순수 후생증진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FTA의 추진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한 립시 등의 학자들은 FTA가 경제적 성공을 거두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¹¹⁾.

첫째, 협정 대상국들 간의 생산이 보완적이기보다는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 경쟁적이어야 한다.

둘째, 체결 국가의 수가 많고 각국의 경제규모가 커야한다. 이는 협정국 내에 효율적인 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협정체결 당시 협정 대상국들 상호간의 경제적 교류가 많아야 한다. 특히, 무역이 많을수록 관세철폐에 따른 무역증대 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넷째, 협정 대상국간 역사적, 지리적 근접성이 커야 한다.

다섯째, 협정체결 이전 협정 대상국 상호간의 무역장벽은 높고 역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낮아야 효율적인 비회원국으로부터 비효율적인 회원국으로의 무역전환이 적게 발생하게 되어 경제적 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크루그만과 립시 등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FTA가 되기 위해서는 (1)협정 체결국간 역

11) 정일구. 이제홍(2006),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성공조건과 추진 타당성 분석」, 한국창업정보학회. 제9권 제2호, pp. 153-154.

사적. 지리적 근접성이 높아야하며 (2)경제규모가 크고 협정 체결 당시 양국 간의 경제적 교류가 활발하고, (3)경제구조가 상호 경쟁적이면서 무역장벽이 높아야 함을 알 수 있다¹²⁾.

4. FTA와 WTO 의 차이점

FTA는 WTO협정상 WTO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GATT 제XXIV조에 소위 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FTA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항에도 언급되어 있다시피, FTA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 (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 대해 무역장벽을 철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FTA의 무역자유화 수준은 WTO에서 규율하고 있는 수준보다 높으며, 또한 FTA는 양 국가 간에 체결하는 조약이기 때문에 WTO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무역자유화에 관한 '맞춤형' 조약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양 국가가 FTA를 맺어 효력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양 국가가 모두 WTO와 FTA의 당사국이라면, 그리고 만약 FTA와 WTO가 동일한 사항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면, FTA상의 조항이 양 당사국에게 우선(prevail)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WTO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죠. 이를 테면 일종의 특별법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FTA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내용에 관해서는 여전히 WTO 협정이 적용됩니다¹³⁾.

제2절 한 · 중 FTA 체결현황 과 필요성

1. 한 · 중 FTA 체결 현황

2013년은 한중수교 21주년이 되는 해이다. 21년 전인 1992년, 한중 양국은 각각 북방 정책 추진과 개혁개방의 가속화를 배경으로 상호 국교 수립에 합의했다. 21년간 양

12) 진병진(2010), 「한중 FTA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연구」 pp.68-69.

13) FTA무역종합지원센터(2012.05.29), "WTO와 FTA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참조.

국 관계는 다음과 같이 ‘공식적인’ 진전과 발전을 이뤄오고 있다. 1992년~1998년까지 선린 우호 협력 관계(睦隣友好合作關係)를 유지하다가 1998년~2000년까지 협력 동반자 관계(合作伙伴關係), 2000년~2003년까지 전면적 협력 관계(全面合作關係), 2003년~2008년까지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全面合作伙伴關係), 2008년~현재까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戰略合作伙伴關係)로 지속적으로 관계가 격상되었다. 이는 한중 간 공식적인 외교 관계의 수립과 격상과정은 두 나라의 상호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래 30여 년 간 고도성장 끝에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10년에 일본을 넘어서서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이끄는 명실상부한 G2국가로 부각되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가 내수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투입한 자금만 무려 한국 GDP의 25%에 달하고, 이 부양자금은 상당부분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한중 FTA는 향후 거대해지고 있는 중국경제를 한국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또한 최근 대만과 중국의 경제협력(ECFA) 강화와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 확대 등은 한중 FTA 문제를 관심 있게 연구할 시급한 시기라고 본다. 특히 21년 간 양국의 경제 교류 성과는 말 그대로 눈부신 변화를 축적해 왔다. 다음은 1992년 수교 이후 2012년까지 한중 경제 교류의 비교를 보여주는 통계이다¹⁴⁾.

<표2. 수교 이후 한중 교역액 증가 추이 비교>

구분	1922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한국 통계	63.7	1,683(26.4배)	1,409(22.1배)	1,884(29.6배)	2,151(33.7배)
중국 통계	50.3	1,861(37.0배)	1,562(31.1배)	2,072(41.2배)	2,542(50.5배)

자료: 한국무역협회/中國海關總署 단위: 억USD; ()안은 1992년 대비 증가폭

<표3. 한중 FTA 추진 과정>

시 기	내 용
2004.09	ASEAN+3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중국 통상장관회담 시 민간 공동 연구 개시 추진합의
2005	2005년부터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간 공동연구 개시; 1년차연구개시

14) 최정석(2013), 「한중 FTA협상 진행현황과 향후 전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조교수.

2006.11.17.	APEC 각료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 회담에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07년부터 개시기로 합의
2007.03.22.~23.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 개최 (베이징)
2008.06.11-13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 개최 (베이징)
2010.05.23	한중 통상장관 회담 시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방안 논의(서울)
2010.05.28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양국 통상장관,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관련 양해각서 서명 (서울)
2010.09.28.~29	한중 FTA 정부 간 사전협약 제1차 회의 개최 (베이징)
2011.04.11	한중 통상장관 회담 (베이징)
2012.03.01.~02	한중 FTA 추진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 (서울)
2012.03.22.~23; 04.05	한중 FTA 추진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 (베이징)
2012.05.02.	한중 통상장관 회담 계기,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
2012.05.14	한중 FTA 제1차 협상 개최(베이징), 2단계 협상 추진 합의
2012.08.22-24	한중 FTA 제3차 협상 개최(웨이하이)
2013.07.02-04	한중 FTA 제6차 협상 개최(부산)

자료: 외교통상부

2. 한국 FTA 체결 현황

<표4> 한국 FTA 체결 현황 요약

진행단계	상대국(지역)	추진현황
	칠레	1999.12월 협상 개시
		2003.2월 서명 2004.4월 발효
	싱가포르	2004.1월 협상 개시
		2005.8월 서명 2006.3월 발효
	EFTA	2005.1월 협상 개시
		2005.12월 서명 2006.9월 발효

현상 발효	ASEAN	2005.2월 협상 개시 2006.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2007.6월 발효 2007.11월 서비스협정 서명 2009.5월 발효 2009.6월 투자협정 서명 2009.9월 발효
	EU	2007.5.6 협상 개시 2009.7.13 협상 타결 2009.10.15 가서명 2010.10.6 서명 2011.7.1 잠정발효
	인도	2006.3.23-24 협상 개시 2008.9.22-25 CEPA 협상 실질적 타결 2010.1.1 CEPA 발효
	페루	2010.8.30 협상 타결 2008.5 민간공동연구 종료 2010.8.30 협상 타결 2010.11.15 가서명 2011.3.21 서명 2011.8.1 발효
	미국	2006.11 민간공동연구 시행 합의 2007.4.2 협상 타결 2010.12월 추가 협상 타결 2011.10.22 “한·미 FTA 이행법” 미 의회 상·하원 통과 2011.11.22 비준동의안 및 14개 부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2.3.15 발효

서명·협상 타결	터키	2008.6월-09.5월 공동연구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10.4월, 7월, 11.3월, 12.3월) 2012.3.26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가서명
	콜롬비아	2009.3월~8월 민간공동연구 총 7차례 공식협상 개최(09.12월~12.6월) 12.8.31 가서명
협상진행	캐나다	총 13차례 공식협상 개최(05.7월~08.3월) 2012년 수석대표간 협의 진행 중
	RCEP	2011.11월 ASEAN이 RCEP 작업계획 제시 2012.11.20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협상개시 선언
	한중일	2003~09년 민간공동연구 2010.5월~11.12월 산. 관. 학 공동연구 2012.5월 3국 정상회의시 “연내 협상개시 목표” 합의 2012.11.20 협상개시 선언
	인도네시아	2011.10월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2012.3.28 한·인니 CEPA 협상개시 선언 2012.7월 제1차 협상 개최
	중국	2007.3월-2010.5월 산. 관. 학 공동연구 2010.9월-민감성 처리방안 등에 관한 사전 실무협의 2012.5.2 협상개시 선언 2012.5.14 제1차 협상 개최
	베트남	2011.11월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2012.8.6 협상개시 선언 2012.9월 제1차 협상 개최

협상준비. 공동연구	MERCOSUR	2005.5월~2-06.12월 정부간 공동연구 완료(07.10월 연구보고서 채택)
	말레이시아	2011.5월 한·말레이시아 FTA 타당성연구 개시 2012.4월 타당성연구 중간점검회의 개최
	이스라엘	2009.8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2010.8월 완료
	베트남	2010.6.23-24 1차 공동작업반 회의 2011.3.16-17 3차 공동작업반 회의 2011.11월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12.4월 공청회 개시
	중미	2010.10 공동연구개시 2011.4월 공동연구 보고서 완료

자료: www.fta.go.kr

3. 중국 FTA 체결 현황

<표5>중국의 주요 FTA 체결 현황 요약

진행단계	상대국(지역)	추진현황
기체결 12건	홍콩	03.6월 CEPA 체결 총 8차례의 CEPA 보완협정(supplements) 체결
	마카오	03.10월 CEPA 체결 총 10차례의 CEPA 보완협정(supplements) 체결
	ASEAN	(상품) 04.11월 서명, 05.7월 발효 (서비스) 07.1월 서명, 07.7월 발효 (투자) 09.8월 서명, 10.1월 발효
	칠레	(상품) 05.11월 서명, 06.10월 발효 (서비스) 08.4월 서명, 10.8월 발효
	파키스탄	(상품·투자) 06.11월 서명, 07.7월 발효 (서비스) 09.2월 서명, 09.10월 발효
	뉴질랜드	08.4월 서명, 08.1월 발효
	싱가포르	08.10월 서명, 09.1월 발효

기체결 12건	페루	09.4월 서명, 10.3월 발효
	코스타리카	10.4월 서명, 11.8월 발효
	대만	10.6월 ECFA 기본협정 서명, 10.9월 발효 12.8월 세관협력협정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 13.6월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상품 협상 진행중
	아이슬란드	07.4월 협상 개시 13.4월 서명
스위스	스위스 11.1월 협상 개시, 13.7월 서명	
협상중 7건	GCC	03.6월 05.4월 협상 개시, 09.6월 제5차 협상
	호주	05.5월 협상 개시, 13.6월 제19차 협상
	노르웨이	08.9월 협상 개시, 10.9월 제8차 협상
	SACU	04.6월 협상 개시 선언
	한국	12.5.2 협상 개시 선언, 13.9월 제7차 협상
	한중일	12.11.20 협상 개시 선언, 13.7월 제2차 협상
	RECP	12.11.20 협상 개시 선언, 13.9월 제2차 협상
공동연구 1건	인도	RTA 공동연구 완료(03.6월~07.10월, 6차례 회의)

자료: www.fta.go.kr

제3절 한중 FTA의 필요성¹⁵⁾

1. 경제적 측면

가. 사업구조 특징 에 따른 상호 보완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자국의 국익 확보에 활용하기 위한 주요 국가들의 대 중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더욱 더 밀접한 협력은 필요하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현실적으로도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에 매우 커다란 상호 보완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개혁, 개방 이래 생산합화와 자동화, 정보화, 노동의 질 개선 등으로 중국의 생산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이에 따라 노동자 1명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몇

15)영호(2013), 「한중 FTA 체결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논문, pp.16-24.

배로 높아지면서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도 실업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한편 한국은 현재 중국보다 높은 공업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인건비는 높은 반면 노동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점진적으로 구조조정과 기술고도화를 추진해왔다. 처음에는 주로 노동집약적 제조업 제품을 수출했었지만 점차로 노동비용이 빠르게 높아지고 경쟁력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또한 1980년대 초의 한국의 중화학공업 우선 정책이 최근에 와서는 전자공업, 자동차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산업으로 확대 이전되었으며, 이는 노동집약적제조업의 해외이전을 촉진시켰다. 반면 중국은 저렴한 고질 좋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 한국산업의 해외 이전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중국의 입장에서 분석해보면, 노동집약형 공업은 주로 중국의 수출을 주도하는 산업이어서 한국의 이러한 이전은 중국에 자본, 기술 및 선진화된 관리능력을 이전해 주어 중국 상품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다

나. 생산 요소의 상호 보완

한국은 국토가 좁고 게다가 경지면적 또한 적어 농산물이 풍부한 편이 못 된다. 뿐만 아니라 여타 자원 역시 빈약하여 필요한 자원 등을 대부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향후 10년간의 해외자원개발목표와 정책방향을 수립한 바 있다. 제2차 기본계획에 비해 자원자급률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된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산업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원료와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기지를 확보하는 것이며, 또한 가까운 곳에서 이것들을 얻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경제발전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될 수 있으면 가까운 곳에서 얻는다는 것은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풍부한 자연자원과 값싼 인적 자원을 가진 중국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경제적인 협력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한중 양국 간의 무역발전의 물질적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은 중국과 비교해 볼 때 1인당 소비수준은 높지만 인구가 적고 시장이 협소하다. 따라서 향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 비록 1인당 소비수준은 낮을지라도 인구가 많고, 이에 따른 무궁무진한 소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데 따라 한국의 여러 상품들, 예컨대 철강제품, 가전제품, 석유류, 전자상품 및 자동차 등은 모두 중국에서 방대한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다. 기술의 상호 보완

한국은 현재 신흥공업국가로서 그 공업화 정도가 중국보다 높으며 비교적 탄탄한 기초를 바탕으로 제조업부문에서는 견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몇몇 제조업, 예컨대,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전자 등의 분야에서는 이미 국제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들 업종이 아직 한국에 미치지 못하여 협력체제가 구축된다면 중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중국은 기초과학이 우세하여 몇몇 첨단 과학, 예컨대 항공운수,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신소재 등의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으로도 선진수준에 따라 있고 한국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써 양국은 협력 체제구축을 통해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의 기초단계

한·중 FTA는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과 통합을 위한 기초 단계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은 ASEAN과 FTA를 발효하고 있고, 한국은 일본과 FTA의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ASEAN+3(한·중·일)의 틀에서 보았을 때 양분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FTA추진은 현재 분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FTA추진은 현재 분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FTA움직임에 있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한·중 FTA는 따라서중·일 또는 한·중·일 FTA, 나아가 동아시아 FTA에 대한 초석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향후 한국과 중국의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의 FTA 추진이라는 목표를 상정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마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중국의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EU, 미국 등과 교역에서는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를 통해 한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를 상쇄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 일본 등 동북아 주요국들과 경제협력기구를 형성할 경우 그에 따른 경우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FTA를 통해 중국과 경제적 동맹관계를 맺는 것은 상호간의 통상마찰 해소와 일방적 보호무역조치 억제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는 중국 시장의 안정적인 확보와 급격한 무역규모의 변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있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바.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적극 대응

지역주의 확산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입장에서는 필수적인 일이다. 주요 경쟁국이 FTA를 통해 주요 시장을 확보해나갈 때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시장접근의 제약 등 미체결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한국이 제외된 상태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FTA가 확대되는 경우, 수입선을 한국으로부터 역내국으로 대체하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한국의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을 활용하기 위한 세계 주요 국가의 대 중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도 FTA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 중국통상정책을 통하여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사. FTA를 통한 경제성장

한. 중간의 FTA는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하여 무역규모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따른 동태적인 효과를 통해 실질 GDP와 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FTA 체결로 역내시장에 대한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제도의 투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역내에 생산거점을 확보하여 확대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정치. 외교적 측면

FTA 체결은 양국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점차 심화시키는 동시에 정치적 측면에서도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교류협력 확대 노력에 힘입어 정치.안보상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 주변을 중심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과 FTA를 통해 정치적 유대관계를 공고히 구축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 주변을 중심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과 통해 정치적 유대관계를 공고히 구축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한. 중. 일 3국간의 FTA 체결이 최상의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3국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다. 그 실현이 난관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득이한 상황을 감안할 때에 우선한. 중 FTA를 우선 실행하게 된다면 동북아의 정치. 안보적 환경개선과 평화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 중 양국 간 FTA가 매가체로 작용되는 가운데 한. 중. 일 3국간 FTA 실현을 더욱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교류협력확대와 평화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현재 아세안과 한. 중. 일 3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가장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 중국은 36여개 국가와 양자 간 혹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거나 추진, 또는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은 이미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남아프리카 공화국, 코스타리카,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호주랑 FTA를 맺었고, 현재 호주, 중동의 GCC 국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와 FTA를 협의하고 있으며 한국 및 인도와도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FTA 정책은 중국이 FTA를 자국의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즉,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화 전략을 추구하는 동시에,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자원부국들과의 에너지 외교 강화의 일환적인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역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한 주도권 확립 등의 영향력 확대를 통한 주도권 확립 등의 외교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데에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한·중 FTA를 단순히 한·중 양자간의 무역확대를 위한 경제협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국가발전과 관련한 대외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한·중 FTA에 대한 전략적 동기는 다음의 세 가지 시각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산업구조 및 기술수준 면에서 한국과 상호보완성이 높으며, 정치적으로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상의 FTA 파트너로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소외 미국식의 국제 표준을 받아 들이기 위한 제도개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회비용 지출이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식 시장경제제도 도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지출을 통한 시장경제로의 제도개혁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한국이 이러한 중국의 발전계획에 적합한 모델로 설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산업기술 수준을 따라 잡을 수 있는 발전전략을 모색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한국과의 FTA를 조기에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이나 미국등의 다른 선진국보다 한국과 FTA를 체결하였을 경우에 기술격차 해소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가능성 및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비용에 의한제도개혁과 구조조정 실행, 그리고 양국 간의 FTA 조기 실현이 여타 국가들과의 FTA 추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외교전략 측면에서도 중국은 한중 FTA를 통해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강화에 대응하고, 일본과의 역내 지역협력에서의 주도권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여타 FTA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중국은 미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국가들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제적 유대의 강화와 아울러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어느정도 상쇄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한중 FTA가 추진될 경우에 한·미 FTA에 대한 대응적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미 FTA가 장차 발효될 경우 나타날 무역전환 효과에 의한 중국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한미 FTA를 통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강화에 대해 중국이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중국의 한·중 FTA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중 FTA는 중·일 관계의 차원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주도권 확보라는 관점에서 중국에게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중국이 전통적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강한 아세안 국가들과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중국은 동아시아지역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FTA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아세안과의 FTA 협상을 일본보다 뒤늦게 시작하였지만, 중국은 자국에 매우 불리한 농업부문의 선자유화조치와 같은 경제적 양보를 감수하면서까지 아세안과의 FTA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일본에 앞서 ASEAN+1 메커니즘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농업문제를 둘러싼 한국과의 FTA 추진에 대해 일본과는 대조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자국의 농업분야의 개방문제에 대해 당초보다 매우 유보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한국과의 FTA 협상을 2004년에 결렬시킨 데 반해, 중국은 농산물 문제를 이유로 한국이 중국의 FTA 조기 체결 요구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를 유보하고서라도 FTA체결 협상을 개시하자는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셋째, 한·중 FTA는 중국의 한반도 관리의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한·중 FTA 체결로 한국의 대 중국 투자가 활성화되면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한국 자본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한국, 북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북한경제의 안정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바라지 않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기조에 비추어 볼 때에, 이러한 시나리오는 한반도 주변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희망하는 중국의 정치·외교 전략과 이해가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3장 한중 FTA에 대한 양국의 전략과 입장

제1절 한중 FTA에 관한 논의동향

1. 한중 FTA에 대한 양국의 시각¹⁶⁾

가. 중국의 시각

중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한·중 FTA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중국이 자원보유국 또는 개발도상국과의 FTA에서 얻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인 에너지, 자원의 확보, 시장 확대, 선진국 우회수출 등의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을 촉진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더욱 두드러진다. 즉,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둘러싼 미국, 일본과의 주도권경쟁 측면에서 한·중 FTA의 전략적 필요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경제적 필요성은 부차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한·중간의 경제교류와 협력관계는 FTA라는 틀 없이도 이미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왔으며 양국 경제의 상호의존도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따라서 최근 중국이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려는 데에는 순수한 경제적 동기보다는 역내에서의 외교·안보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요인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중국은 한국과의 FTA 추진을 통해 동북3성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거나, 구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습득하기에 용이한 한국의 기술을 취득하여 자국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려는 경제적 의도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교·안보적 이익추구에 이은 부수적인 목적으로 보인다.

중국 산업계 또한 한·중 FTA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2007년 4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7대 도시 178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중 FTA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기업의 한·중 FTA에 대한 지지율은 93.8%에 이르며 이중 절반 이상(56.7%)의 기업들이 “당장 협상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북아시아 FTA 체결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한·중 FTA 우선(59%)한.

16) 영호(2013), 「전계논문」, pp.25-30.

중·일 FTA 동시(29.2%), 중·일 FTA 우선(10.1%)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가장 원하지 않는 상황은 한국과 일본의 먼저FTA를 체결하는 것(1.7%)이라고 답변하였다¹⁷⁾.

이를 종합해 보면 중국은 정부와 산업계가 모두 한·중 FTA의 체결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한국의 시각

한·중 FTA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식은 중국과 비교하여 추진목적 면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발견된다. 한·중 FTA를 포함하여 중국이 추진하고 대부분의 FTA가 경제적 이익증대 보다는 외교·안보적 측면의 이익에 치중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 한·중 FTA를 포함하여 그간 타결되었거나 진행 중인 FTA들이 대부분 경제적 이익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한국이 중국을 FTA 상대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지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우선 한국은 중국의 거대한 시장규모와 성장잠재력에 주목하여 해외시장 접근기회의 확대라는 면에서 중국을 미국, 일본, EU 등과함께 주요한 FTA 대상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중국과의 FTA 체결을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내수시장에 대한 최우선 접근권을 확보하는 의미로 인식하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한국은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장벽의 철폐 또는 완화를 통한 수출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의 기술수준으로 인해 선진국과의 FTA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쟁력 제고와 기술이전 효과는 기대하지 않고 있는 반면, 중국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자원이 이동하게 됨으로써 산업구조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부수적이기는 하지만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한국은 한·중 FTA가 두 나라 사이의 정치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¹⁸⁾.

한국 산업계의 한·중 FTA에 대한 인식은 2007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권 기업 2000 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산업계는 원칙

17) KOTRA(2007), 「중국기업의 한·중 FTA 인식과 전망」, Global Business Report 07-015, p.1

18) 남영숙, 이창수, 지만수, 정인교(2004),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50-53.

적으로 중국과의 FTA 체결에 찬성하고있는 곳으로 보인다¹⁹⁾.

이 조사에 의하면 응답기업의 41.1%가 한. 중 FTA 체결에 찬성의견을 나타내 반대의견을 표시한 기업(21.0%)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잘 모르겠음 38.0%). 특히, 중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 중국 교역기업과 대 중국 투자기업의 경우 68.5%, 66.5%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FTA 추진시기와 관련해서는 응답기업의 43.2%가 앞으로 6년 이후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업들은 한. 중FTA가 체결될 경우 수출을 비롯하여 국내경제에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한. 중 FTA로 국내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절반(53.1%)을 넘었다.

이를 조합해 보면 한국은 한. 중 FTA에 대해 산업계일부에서 부정적인견해를 제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정부와 산업계가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 중 FTA를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2. 한중 FTA의 논의경과²⁰⁾

한국과 중국간 FTA에 관한 논의는 지난 2004년 ASEAN+3경제장관회의 시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추진 합의로 시작되었다. 이후 2006년까지 2년 여간 민간공동연구차원에서 진행되다가, 2007년부터 한중 FTA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와 함께 경제, 통상관련 정책, 법, 제도 현황에 대한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산, 관, 학 공동연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중국이 한중 FTA를 추진하는 동기 측면에서 볼때 한국은 ASEAN, 인도 동남아시아 다음으로 FTA를 추진할 동기가 강한 대상국으로 조사된다²¹⁾. 중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에너지자원, 시장 확대 및 대선진국 우회수출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의미가 작다. 그러나 지역경제통합 구도 속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목표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미국, 일본과 동아시아를 둘러싼 역내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이 자국의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한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의미한

19)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fta.korea.kr> (2008년 8월 12일 검색).

20) 영호(2013), 「한중 FTA 체결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논문, pp.28-30. 참조.

21) 이장규 외(2006), 「중국의 FTA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110-123.

다²²⁾. 아울러 중국이 상대적으로 따라 잡거나 취득하기에 용이한 기술수준을 보유한 한국과의 FTA를 통해 자국 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유인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정부 방침은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한국 정부의 발표²³⁾에 따르면 산. 관. 학 공동연구 보고서의 총7개 분야 18개 소분야 중 3개 소분야(농림수산업, 정부조달, 결론 및 권고)를 제외한 제조업, 원산지, 통관, 지적재산권, 경쟁, 경제협력, SPS(위생검역) 등 15개 소분야에서 어느 정도는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한중 산. 관. 학 공동연구가 FTA 협상 개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를 통해 한국 농수산업 등 분야의 민간성을 지적하면서, 적절한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중국과 충분한 의견 교환 기회를 갖고 있으며, 공동연구 종료 후 국내업계, 학계 등과의 간담회, 공청회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한중 FTA 협상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5차 산. 관. 학 공동연구 개최이후 현재까지 아직 추가적인 연구나 정부 간 협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한중FTA는 양국 간 필요성에 대하여 산. 관. 학 차원에서 검토가 많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FTA 협상 이전이라도 주요 예상 쟁점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 경제적 실익 제고 방안, 피해 산업 최소화 및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와 보완책 마련이 중단 없이 계속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토대로 하루속히 한중 FTA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나 일정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표 6> 한중 FTA 논의경과

연도	추진 내용
2002	중국, 한중 FTA공동연구 제의
2004.9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내에 TF팀 설치 ASEAN+3 경제장관회의 계기로 한중 통상장관회담 시 민간공동연구개시 추진합의

22) 2009.12월에 방한한 시진핑 중국 부주석은 “경제, 무역관계가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동력”이며 “한중 FTA 협상을 조기에 착수” 할 것을 제안했다.

23)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 개최결과” (2008.2.21) 및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결과” (2008.6.14).

2005	2005년부터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간 공동연구 개시, 1년차 연구수행
2006	민간공동연구 2년차 연구수행 후 11월 연구종료 한중FTA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산. 관. 학 공동연구 필요성을 정책제안에서 제시
2006. 11. 17	APEC 각료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FTA 산. 관. 학 공동연구를 2007년부터 개시하기로 합의
2007. 3. 22-23	한-중국 FTA 산. 관. 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개최(북경)
2007. 7. 3-4	한중 산. 관. 학 공동연구 제2차 회의 개최(서울)
2007. 10. 23-25	한중 FTA 산. 관. 학 공동연구 제3차 회의 개최(위해)
2008. 2. 18-20	한중 FTA 산. 관. 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 개최(제주)
2008. 6	한중FTA 산. 관. 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 개최(북경)
2010. 2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 수석대표간 합의(북경)
2010. 5. 23	한-중 통상장관 회담시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방안 논의(서울)
2010. 5. 28	양국 정상 임석하에 양국 통상장관,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관련 양해각서 서명(서울)
2010. 9. 28-29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 개최(북경)
2011. 4. 11	한-중 통상장관회담(북경)
2012. 2. 24	한-중 FTA 공청회
2012. 3. 1-3. 2	한-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서울)
2012. 3. 22-23 04. 05	한-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북경)
2012. 05. 02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 (북경)
2012. 5. 14	제1차 협상(Kick-off meeting) 개최(베이징)
2012. 7. 3-7. 5	제2차 협상(Kick-off meeting) 개최(베이징)
2012. 8. 22-24	제3차 협상 개최(웨이하이)
2012. 10. 30-11. 1	제4차 협상 개최(경주)
2013. 04. 26-28	제5차 협상 개최(하얼빈)
2013. 07. 02-04	제6차 협상 개최(부산)

2013.09.03-05	제7차 협상 개최(웨이팡)
2013.11.18-22	제 8차 협상 개최(인천 송도)
2014.01.06-10	제 9차 협상 개최(중국 서안)
2014.03.17-21	제 10차 협상 개최(일산)
2014.04.15-16	중-한 FTA 회기간 회의 개최(북경)

자료: www.fta.go.kr

3. 한중 FTA 협상타결을 위한 과제²⁴⁾

한. 중 FTA의 필요성에 대해 양국정부와 산업계가 상당 부분 공간하고있고, FTA의 현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 또한 진행되고 있지만 다음과같은 몇 가지 점들은 한. 중 FTA의 실현가능성에 제약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 협상 포괄범위의 불일치

지금까지 중국이 추진해온 FTA에서 발견되는 특징 중 하나는 협상의 포괄범위가 좁다는 점이다. 중국은 2008년 4월 체결된 뉴질랜드와의 FTA를 제외하고는 이미 체결되었거나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모든 FTA에서 상품분야 협정을 먼저 체결하고, 서비스분야 협정을 나중에 체결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는 포괄적 FTA(Comprehensive FTA)를 체결할 경우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것에 대한 우려와 관계 이외의 분야에서는 개방에 민감한 자국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최근 들어 그 폭이 다소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무역수지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한국과의 FTA에 있어서도 기존의 FTA들과 마찬가지로 단계적 FTA 추진전략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반해 한국은 이미 효력이 발효 중이거나 타결된 7건의 FTA중ASEAN과의 FTA를 제외하고는 모두 협상단계에서부터 포괄적 FTA를 지향해 왔고, 앞으로 있을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를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두 국가 간의 교역 특성을 감안할 때 상품협정 수준의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기업의 대 중국 수출 증대효과가 예상외로 적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중국산 제품

24) 진병진(2010), 「한중 FTA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 동북아연구소, pp.77-79.

또는 중국내 제3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수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 한·중 FTA에 따른대 중국 수출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세철폐와 더불어 비관세조치의 완화, 지적재산권 보호, 중국 내 한국 투자기업의 사업 환경 개선, 서비스시장 개방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포괄적 FTA가 한국 내 이해관계자간의 의견조율을 쉽게 해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은 그간 FTA를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격렬한 FTA 반대운동에 시달려 왔다. 이는 한·중FTA의 협상과정에서도 중소기업 부문과 특히 농업부문의 격렬한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은 협상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이슈간의 교환(trade off)이 가능해지므로,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이해당사자들 간 의견 조율을 실행함으로써 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중 FTA의 추진에 있어 경제적 이익 보다는 외교, 안보적이익에 비중을 두고 있는 중국이 한국의 포괄적 FTA 추진 요구를 쉽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데에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두 나라의 이러한 FTA협상관행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나. 무역규범과 쟁점부문에서의 불확실한 의견 일치 가능성

한국의 의도대로 한·중 FTA가 포괄적 FTA를 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협상과정에서 무역규범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에 대해 양국의 의견이 일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포괄적 FTA는 상품의수출입과 관련된 관세철폐 이외에 각종 무역규범과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포함하다. 따라서 향후 한·중 FTA의 협상과정에서도 원산지 규정의 적용 문제, 서비스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등과 같은 무역규범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다. 한국 농업의 취약성과 농업부문의 반발

한·중 FTA의 체결을 가로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장애요인 중 하나는 한국의 농업부문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과 농업부문의 강력한 반발의 발생가능성이다.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교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수출하고 한국은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농업은 제조업과 달리 산업 내 무역의 확산을 통한 FTA의 이익공유가 어렵다. 따라서 제약 없는 FTA가 체결될 경우 많은 품목에서 일방적인 중국의 수출확대가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이 가능한 이유는 중국 동북부지방은 한국과 유사한 농산물의 작목구조 및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고, 중국의 가격경쟁력이 한국을 압도하고 있으며 지리적 인접성으로 운송기간 중 농산물 신선도 유지에서 타 경쟁국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FTA 이후 중국 농산물의 한국 시장 유입이 급증하게 됨으로써 한국의 농업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농업 부문은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가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 FTA 자체를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제2절 한중 FTA에 대한 양국의 전략 비교²⁵⁾

1. 중국의 FTA 추진배경과 목표

가. 중국의 FTA의 추진배경

중국은 1993년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 도입과 시장경제 지향적 개혁조치 이후에도 FTA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2001년 WTO 가입을 전후로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기 시작한다. WTO 가입 이후 DDA 담보에서 나타난 WTO 체제의 한계와 NAFTA 및 EU의 발전 등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인식, 개혁 개방에 대한 자신감 등을 바탕으로 중국정은 FTA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한다.

중국의 적극적 FTA 추진배경에는 중국을 배제한 채 미·일 등 해양세력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TPP 등 지역통합 이니셔티브에 대한 견제심리, 중화경제권의 외연 확대, 전략 지역에 대한 진출 교두보 마련, 역내국가와의 외교관계 개선 등 다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한중, 한중일 FTA를 적극 추진하는 배경에는

25) 영호(2013), 「한중 FTA 체결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논문, pp.33-41.

2011.11.17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호주의회 연설에서 이른바 “오바마 독트린”이라는 새로운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고, 이를 일종의 중국 포위 전략으로 해석한 중국이 우선 이웃국가들과의 FTA를 통해 그 포위망을 돌파해 나가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곳으로 보인다.

나. 중국의 FTA의 추진 목표

거대한 국토와 주변 인접국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이고 다양한 형식의 FTA를 추진하며, 기본적으로 자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정적인 자원 확보 등 미래의 전략적 이익을 우선 고려한다.

(1). 경험 축적 및 수출시장 다원화

중국은 FTA 파트너 선택에 있어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나 지역그룹을 먼저 고려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한국이 칠레, 싱가포르 등과의 FTA를 통해 실전 경험을 먼저 쌓은 후 그 대상을 점차 확대했던 것처럼 중국역시 자국 산업에 대한 충격이 크지 않은 나라와의 협상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기위해 세운 방침이다. 중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이 선진국들인데도 불구하고 FTA 타결 국가가 비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전략은 협상역량 강화와 남남협력을 통해 개도국 그룹에 대한 협상력을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신시장을 향하여’라는 시장다원화 전략에도 도움을 준다. 즉, 중국은 선진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개도국을 잠재시장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다방위, 다형식의 전략을 내세워 대륙별로 대표적인 나라를 선택해 동시다발적인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대주변 선정

‘대주변’이란 동아시아를 주축으로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그리고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아태지역 국가에 이르기까지, 즉 중국을 중심으로 둘러싸인 주변지역을 큰 범주로 정의하여 가리키는 말이다. 중국은 FTA 파트너를 선택할 때 이

‘대주변’ 국가들을 우선 고려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물론 중국의 주요 교역국이 이 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국을 중심으로 넓은 지역블록을 구축하려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다.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주임 쉬창운 등 학자들의 보고서나 발언을 보면, ‘전세계적으로 FTA 추진사례를 살펴볼 때, 대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중국이 역내경제협력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은 필연적’ 이라며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책임을 저야 하고 자국시장개방을 통해 대국으로서의 믿음직스러운 이미지를 확립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이 눈에 띄는데 이런 시각은 중국에서는 매우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 최대 영토국이자 인구 보유국이며 유일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동시에 동아시아 문화의 발상지이므로 FTA를 추진할 때도 대등한 공동체 의식보다는 대국과 주변국이라는 자국중심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의 ‘대주변을 향하여’ 전략 역시 이런 사고방식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3). 국내 경제정책 효과 극대화

중국 내 경제정책도 FTA 전략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 서남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ASEAN과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한 것도 서부대 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동남아는 중국 지역의 남하 통로와 주요 수출시장이면서 화교자본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인데 양 지역 간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면 화교 자본을 서남지역으로 끌어들이기가 한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FTA 체결 이후 광시성을 자유무역지대의 물류중심과 자원투자개발중심으로, 운남성을 비즈니스교류중심으로 건설하겠다는 움직임이나, 이를 위해 광시성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4). 안정적인 에너지 및 자원 공급원 확보

중국은 경제고성장에 따른 자원부족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FTA를 통한자원 확보를 매우 중시한다. 칠레(구리), 호주(철광석, 아연, 니켈), 아이슬란드(알루미늄) 등은 모두 중국의 주요 광물 수입국이며, GCC 6개국 이전 세계 45%이상의 석유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중국의 의도는 자명하다. SCO 국가들과 군사안보협력 이외에 경제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이 국가들의 풍부한 에너지 매장량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 중국은 SCO 국가들을 ‘서쪽으로 펼치는 날개’ 에 비유할 정도로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에너지 수송통로’ 의 역할도 매우중요시하고 있다.

2.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전략

가. 경제적 측면

한. 중 FTA에 대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중국 전략을 살펴보면, 중국은 FTA 체결에 따른 일반적 효과 즉 수출 증대에 따른 생산효과, 고용효과, 투자효과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리적 인접성, 경제구조상의 상호보완성,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가장 수용하기 용이한 수준이라는 점 등이 중국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추진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중국은 한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 및 글로벌화 추진 경험, 제도 등을 수용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소위 미국식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국내 제도개혁에 많은 사회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지불 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식의 시장경제 제도보다는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시장경제로의 제도 개혁을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바,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발전계획에 적합한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제11기 5개년 경제발전계획 기간인 2006-2010에 “과학기술발전관”을 주창하고, 한국을 본받아야 할 경제발전의 모델로 설정하여 한국의 산업기술 수준을 따라 잡을 수 있는 발전전략을 모색해 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한국과의 FTA를 조기에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이나 미국 등의 다른 선진국 보다 한국과 FTA를 체결하였을 경우 기술격차 해소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가능성, 상대적으로 적은 제도개혁, 구조조정 비용 및 양국간의 경제관계 관리의 상대적 용이성 등에서 한국과의 FTA가 다른 국가들 보다 더 유리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나. 정치, 외교적 측면

한. 중 FTA를 포함한 주변지역과의 FTA 추진을 통해 주변정세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상호의존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비대칭적 상호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FTA는 거대중국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국가와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상호의존도를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대칭적 상호의존효과는 중국이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상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즉 중국이 FTA를 수단으로 역내영향력을 확대하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에 대한 대응이며 역내 차원에서는 일본과 인도의 주도권 및 영향력에 대한 견제라고 할 수 있다.

한·중 FTA는 중일관계의 차원 특히,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의 주도권확보의 관점에서 중국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국이 전통적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강한 아세안국가들과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도 드러나듯이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FTA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일본보다 아세안과 FTA 협상을 훨씬 나중에 개시하였지만, 중국은 자국에 매우불리한 농업부문의 선자유화조치(EHP: Early Harvest Progeam)와 같은 경제적 양보를 감수하면서까지 아세안과의 FTA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일본에 앞서 “ASEAN+1” 메카니즘을 주도하게 되었다(Lee hongshik andIm Hyejoon 2005).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농업문제를 둘러싼 한국과의FTA에 대해 일본과는 사뭇 대조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는 자국의 농업분야의 개방에 대해 당초보다 매우 유보적 태도를 보임으로서 한국과의 FTA 협상을 2004년 결렬시킨데 반해, 중국은 농산물 문제를 이유로 한국이 중국의 FTA 조기체결 요구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를 유보하고서라도 FTA체결협상을 개시하자는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중 FTA는 중국의 한반도 관리의 정치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지닌다. 예를 들어, 한중 FTA 체결로 한국의 대 중국 투자가 활성화되면 중국 동북지역에 한국 자본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고, 이는 중·한·북 3국 간 경제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북한 경제의 안정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북한 사회주의 정권의 급격한 붕괴를 바라지 않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기조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시나리오는 한반도 주변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원하는 중국의 외교 전략적 이해와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3. 한중 FTA에 대한 한국의 전략

가. 경제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한국의 한중 FTA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중국은 최대의 교역 대상국인 만큼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출의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재 가장 규모가 큰수출시장에서 관세 인하와 제도적 안정성 예컨대 통상 마찰의 완화와 같은조치 등이 보완되어 수출의 상승이 이어진다면 한국의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선 분석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중국은 한국 전자제품, 자동차, 기계, 화학 등의 원료 또는 부품의 주요 수출처일 뿐만 아니라, 완제품의 수출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FTA의 체결은 상당한 수출신장세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의 해외투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FTA 체결을 통해 투자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해외투자에 의한 경제적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중국시장은 소비재와 중간재에 있어 한국과의 기술적 격차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생산설비와 기술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높기 때문에 FTA 체결은 중소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양호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²⁶⁾.

2010년 6월 중국과 타이완은 경제협력기존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안간 교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타이완은 대 중국 수출에서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 중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의 체결은 이러한 불리한 경쟁 여건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정치. 외교적 측면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도 중국과의 FTA가 필요하다. 첫째, 한중 FTA로 인해 한국의 동북3성에 대한 투자가 증대하면 북한과의 교류협력 기회도 넓어지게 되며, 동북아의 평화질서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일본 중심의 외교통상 협력 라인을 대륙으로 대각화한

26) KOTRA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90% 이상이 중국 내 사업을 유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중국투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매일 경제,2010.8.22)

다는 의미에서도 한중 FTA가 중요하다. 동아시아 경제권의 비중이 늘어나고 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미일 중심의 태평양 라인만을 고집한다면 신흥 경제권으로 부상하는 동아시아와의 협력 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우수근 2009). 더욱이 이러한 취지의 한중 FTA는 미국과 일본의 동아시아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견제하고 패권구조가 아닌 다자방식에 의해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추진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한중 FTA는 궁극적으로 동북아 및 아시아 전체의 경제협력과 통합을 위한 초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SEAN과 동북아 국가와의 경제적 유대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국가들은 이 지역에서의 정치, 경제적 주도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는 동남아 화교와의 연대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동남아 협력에 일조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표 7>는 한중 FTA에 대한 양국의 추진전략을 비교한 것을 요약한 것이다. 중국의 경우 기술 성장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의 경제적 동기가 크긴 하지만, 대주면 선점과 미·일 영향력 제한을 위한 정치·외교적 측면의 전략이 더 강화되고 할 수 있고, 한국의 경우 북한이나 동북아국가들과의 정치·외교적 측면보다는 중국시장 확보의 경제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표 7> 한중 FTA에 대한 양국의 전략비교요약

구분	중국	한국
경제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 용이성 * 기술 성장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 적은 비용의 경제개혁 및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 해외투자대상지의 확보 * 국내수출산업의 활성화

정치. 외교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주면 선정 * 미. 일 영향력 제한 * 중국 중심의 협력질서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과의 교류협력기회 증대 * 동북아와의 협력기회포 착 * 동북아 안보환경의 개선
---------------	--	---

자료 : 이충배외 2인: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양국의 FTA 추진전략 비교” 2011

제3절 한중 FTA에 대한 양국의 입장

1. 중국의 입장

가. 한국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 및 수출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주요시장인 미국 등의 수입수요가 정체하면서 중국의 수출확대 촉진을 위해 'FTA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 수출을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었다. 예컨대 파키스탄의 경우 2009년 1~4월 기간에 세계 수입은 11.5%가 감소했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31.5%가 증가했다. 뉴질랜드의 경우도 전체 수입은 8% 감소했지만 對중국 수입은 11%가 증가했고 칠레의 경우도 총수입은 33% 감소했으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9%감소하는데 그친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대한 수출신장률이 높고 이들 국가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높다. 중국은 이와 같이 FTA가 안정적인 해외수요 및 수출 확대 측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한중FTA체결은 한국에 대한 수출을 더욱 안정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중국은 생각하고 있다.

나. 양국 간의 무역협력 수준을 제고

한중일의 총 GDP는 10조 달러로 유럽의 12조 달러에 육박하지만 3국 간 무역규모와 투자액은 각각 3개국 총 무역과 총 투자액의 17.6%와 6%에 불과하다. 이는 다시 말하

면 한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과 투자의 잠재력이 크며 자유무역지 대의 설립이 양국 간 경제무역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다. 한미 FTA가 중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화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과 미국의 수출입은 증가할 것이다. 이는 곧 한미FTA체결로 인해 양국이 현재 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의 교역이 한국과 미국으로 전환되는 무역전환효과가 나타날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한국시장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구조가 유사한 한국과 중국은 모두 대외무역 의존도가 70%를 상회하고, 주로 완제품을 수출한다. 한국의 對미 주요 수출 제품인 자동차, 반도체, 컴퓨터기기, 전자제품, 의류 등은 중국 상품과 경쟁관계이므로 한미FTA의 체결로 미국의 對중국 수입이 감소되고 중국의 對 한국 농산물 수출도 악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FTA 체결을 통해 한국에 대한 수출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한미FTA로 인해 나타나는 중국에 미치는 악영향을 해소하고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라.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이웃국가와의 '이익 공동체'를 구축

역내 국가 이익공동체와 같이 지역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외교적 목적을 실현 하자는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고립국면을 전환시키고 세계 정치·경제적 질서 경쟁 속에서 더욱 많은 지지자를 확보하고, 지역 구심력의 조화 역할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과 FTA를 통해 한중 공동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중국 주변의 이익 공동체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동아시아 통합을 중국의 지역화의 시범 지역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FTA논의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마. 중국의 주도하에 지역협력을 통한 플랫폼 구축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PEC이 모태가 될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P), 아시아태평양공동체(APC)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들 지역협력 메커니즘에서 미국은 가장 중요한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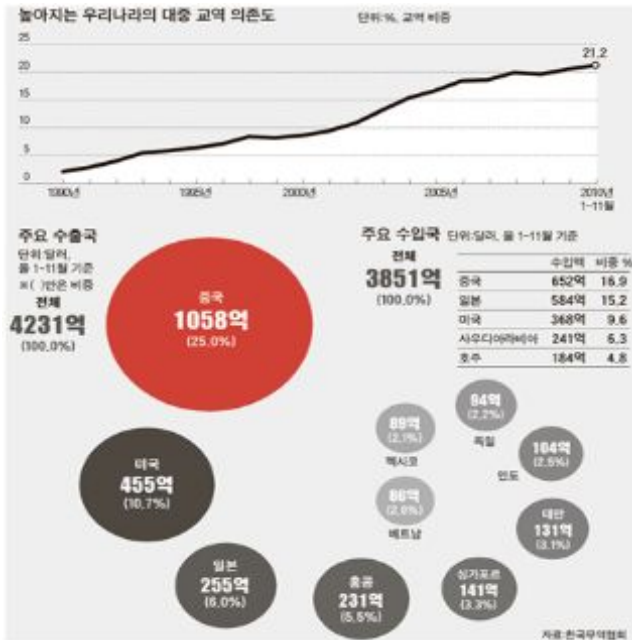
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들 협력체의 다수를 이루게 되는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중국 주도의 지역 협력을 통한 플랫폼 구축은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참여보다 더 적합하며, 중국 입장에서 동아시아 협력은 아시아*태평양 협력 보다 중요하다.

2. 한국의 입장

가. 높아지는 한국의 대중 교역 의존도

2010년 11월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비중은 2010년 1~11월 기준으로 전체의 약 25%, 1058억의 수출량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미 수출액 455억 보다 2배 이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중 수입 또한 우리나라 총수입의 16.7%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대중 교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한중 FTA의 협상 결과는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1>: 높아지는 한국의 대중 교역 의존도



자료: 한국무역협회

나. 중국의 민간소비 증가

중국은 국내 불균형 해소와 대외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투자 주도에서 민간 소비 주도로 성장전략을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런 전략의 결과로 2020년 중국의 민간소비 증가 규모가 미국의 민간소비 증가 규모보다 약 1.35배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선진국의 수입수요 정체 속에서 중국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한중 FTA는 한국이 대중교역에 있어 중국 시장 진출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표 8>:중국과 미국의 GDP 및 민간소비 규모 전망(2005년 가격 기준)

구분	GDP			민간소비		
	2009	2020	증가 규모	2009	2020	증가 규모
중국 (억 달러)	34,738	83,363	48,625	12,091 (34.8%*)	41,681 (50.0%*)	29,591
미국 (억 달러)	128,806	174,575	45,769	91,539 (71.1%*)	113,474 (65.0%*)	21,935
중국/미국	27.0%	47.8%	106.2%	13.2%	36.7%	134.9%

자료: Global Insight

다. 투자에서 한국의 최대 협력 대상국으로 급부상한 중국

해외직접투자는 한국기업의 중요한 경영활동이 되었으며, 한국 제조업 상위 300대 기업의 75%는 해외투자를 하고 있다. 그 중 273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204개의 기업이 해외투자를 하고 있으며, 204개의 기업 중 154개 기업(75.5%)이 중국에 투자 하고 있다. 또한 2010년 9월 말 기준 누계 투자액을 보면, 중국에 대한 투자가 308.4억 달러, 미국에 대한 투자가 307.6억 달러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한국기업의 중국투자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진다.

라. 한중FTA의 체결 = 역동적인 경제 허브(hub)

현재 한국의 FTA는 많은 논란과 정치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무역 비중²⁷⁾을 기준으로 보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2009년 말 기발호 FTA에 대한 한국의 교역 비중은 14.4%에 불과하고 실제로 기타결된 3국²⁸⁾을 포함해도 특혜무역 비중은 전체 35.8%에 불과하다. 이런 수준으로서는 한국이 FTA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현재 협상 중인 FTA가 모두 체결된다면 특혜 무역 비중은 50%를 상회하게 되고, 여기에 중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특혜 무역 비중은 75% 수준이 될 것이다. 한중 FTA를 체결하면 일본과의 FTA도 순조롭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FTA에 의한 무역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고, 보다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 선진국 수출환경 악화

2008~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경제를 침체 속으로 몰아넣었고 비록 위기에서 탈출한다고 해도 세계경제에 큰 여진을 남겼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가 과거와 같이 세계경제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를 초래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성장률이 1990년대로 회복 된다고 해도 선진국의 수입수요는 그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할 것이고, 결국 수입보다는 수출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수출국의 교역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다. 이런 선진국과의 교역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교역을 더 유리하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의 교역환경 개선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3. 양국 입장차이 비교 분석²⁹⁾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중 FTA 대한 경제적 목적을 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적 목적도

27) 한국이 현재 무역을 시행하고 있는 전체 국가 중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의 무역비중

28) 미국, EU, 페루

29) 이희옥(2008), 「한중 FTA와 동아시아 지역주의」 풀빛출판사.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양국 간의 FTA 체결로 인한 선진기술습득과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를 유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한국으로의 농산물 및 일부 제조업 제품의 수출 확대를 통하여 한중 무역 수지적자 문제를 완화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를 통해 중국 동북지방의 개발을 촉진하려는 의도와 한중 FTA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킴으로써 역내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한중 중심의 경제협력체로 쏠리게 하는 “FTA 도미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는 동북아지역에서의 리더십 강화, 대미 견제와 차별화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중 FTA에 대한 중국시장 활용 기회 확대와 한국경제의 역동성 강화 등 목적이 있지만 한중 FTA가 한국경제에 큰 위협 및 우려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 중국으로 부터의 농산물 및 저가 공산품이 급격하게 유입되어 한국의 관련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동시에 경제의 양극화 협상도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또한 중국⁹⁾의 경제구조 및 정책, 제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중 FTA를 추진할 경우 한국이 기대하는 FTA 효과를 얻어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래 <표 9>는 한중 FTA대한 입장 차이 비교한 것을 요약한 것이다.

<표 9> 한중 FTA 대한 입장 차이 비교요약

한국의 입장	중국시장 활용 기회 확대 한국경제의 역동성 강화
	한국 경제에 큰 위협 및 우려
중국의 입장	선진기술습득과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를 유치 한중 무역 수지적자 문제를 완화하다 중국 동북지방의 개발 “FTA 도미노 효과”를 기대하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리더십 강화 대미 견제와 차별화

제4장 한·중 FTA가 양국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일반무역에 대한 영향

2012년 현재 한중 교역은 대체로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 중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전년 보다 14.9% 증가 하였으며, 대중국 수입은 32.0% 증가하였다. 2012년에 들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증가율이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고도성장에 따라 중국 내 수요가 호조를 띠는 것 이외에도 위안화의 절상,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단기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³⁰⁾.

<표 10> 한국의 산업별 중국에 대한 수출입 변화율 (단위 : %)

구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對중국 수출	對중국 수입	對중국 수출	對중국 수입
농산물	48.3	104.8	100.0	209.3
축산물	30.2	54.8	66.0	108.4
수산물	18.8	18.2	39.5	36.4
식품	45.3	82.2	48.1	81.4
광업	22.3	21.6	22.2	21.8
전자	15.4	15.7	15.3	15.7
철강	22.1	12.7	22.0	12.7
석유화학	37.0	41.9	37.0	41.9
자동차	97.2	41.9	97.1	41.9
기계	39.6	52.1	39.5	52.1
섬유	73.6	49.3	74.0	49.3
제지	33.9	31.9	34.1	31.8
금속	35.3	37.5	35.1	37.4
기타제조	99.1	49.5	99.1	49.5
농축수산업	39.8	71.3	83.6	142.3
제조업	34.0	34.8	33.9	34.8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30) 외교도상부(2012.9): 「한중간 교역현황 및 중국 교역현황」

제2절 농업에 대한 영향

한국은 한·중 FTA 체결 시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극히 저조한 농업부문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현재 농산물 관세율에따라 한국 내 시장이 요동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중국산 농산물은 관세율을 부과하고도 가격 경쟁력에서는 한국산보다 높다. 이미 소비자들의 소비 기준은 품질이 보장되는 친환경상품에 대해서는 국내산을, 품질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싼 것은 중국산을 선택하고 있다. 한·중 FTA로 인하여 대상 품목이 확대될 때 타격을 받을 농산물의 종류가 확대될 수 있으나, 소비자 선택을 기준으로 볼 때 쌀과 같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논의로 한다면 여타 농산물의 극적인 수입량의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기우일 수도 있다³¹⁾.

<표11> 관세감축 대상에서 쌀을 제외했을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 %)

구분	거시		생산		수입	
	GDP	후생	쌀	타농산물	쌀	타농산물
쌀 관세 감축 유예	2.71	1.22	0.1	-1.5	2.0	4.6
쌀 관세 감축	2.72	1.25	-2.8	-0.8	33.5	3.7

자료:삼성경제연구소

쌀의 관세를 50% 감축할 경우, 한국의 쌀(벼) 생산은 2.8% 감소하고, 수입은 33.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관세 감축 예외 품목이 될 경우, 한국의 쌀 생산은 0.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수입도 2%만이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한중 FTA시 쌀의 관세 감축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쌀 생산은 오히려 증가하나, 다른 농작물의 생산은 더 크게 감소하는 상충관계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제3절 투자에 대한 영향

한국의 대 중국투자는 1988년부터 민간차원의 교류로 시작되어 매우 빠른 속도로 증

31) 영호(2013): 「한중 FTA 체결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논문, p.48.

가하고 있다. 특히 1992년 한중수교 후 양국은 경제, 무역, 기술 등 각 영역의 전반적인 합작을 시작함으로써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은 계속 한국의 제1위 대외 직접 투자국이었다. 2007년 대 중국 투자는 73.3억 달러로 대세계 투자금액의 24.1% 차지하였다. 그 이유는 중국의 WTO 가입 후에 미국, 유럽 시장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는 여전히 고속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거대한 시장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64.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³²⁾.

<표 12> 한-중 투자 교류 현황 (단위: 억 달러, % 신고 기준)

	2003	2005	2010	2011	2012	2013 1분기	누계
중 → 한 (비중*)	0.5 (0.8)	0.7 (0.6)	4.1 (3.2)	6.5 (4.8)	14.5 (4.5)	1.1 (1.6)	73.5 (2.4)
한 → 중 (비중*)	29.5 (44.9)	37.0 (37.8)	44.2 (12.7)	48.8 (10.8)	64.8 (27.7)	8.6 (12.0)	588.1 (17.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 수출입은행 홈페이지

'중 → 한' 비중은 전세계의 대한국 투자액 대비 중국의 투자액 비중. '한 → 중' 비중은 한국의 대세계 투자액 대비 대중국 투자액 비중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초창기에는 무역, 서비스업이 주요 대상이었다. 2002년 이후 중국의 제조업체가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국의 한국투자가 다원화 발전 단계에 들어갔다. 2012년 신고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대세계 투자액의 4.5%로 투자액은 14.5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³³⁾.

저임금 및 낮은 토지가격 등 생산 요소의 우위를 이유로 많은 한국 기업은 중국에 해외직접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일부 한국계 기업의 생산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도 새로운 규제가 나왔는데 주로 에너지 소모량, 오염 발생량이 많은 사업의 투자는 거부, 첨단 산업, 금융, 서비스업 유치한다는 것이 그 주 내용이다. 투자제한 업종은 각종 제약을 받게 되고, 투자 장려 업종은 관세에서부터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를 통해 외국인의 투자가 촉진되는데 투자 장려 업종에는 친환경, 신소재 산업, 그리고 하이테크 산업이

32) HAO YING WEI(2014), 「한중 FTA의 기대효과와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경제통상학과, 석사논문, p.35.

33) HAO YING WEI(2014), 「상계논문」, p.36.

포함되어 있다. 친환경 산업이 중국에 투자된다면 중국의 환경문제의 개선에도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중국의 환경 관련 기술의 향상을 통해서 장차 중국 기업들의 친환경 기업 경영 능력 또한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1년에 중국에서 통과 예정인 ‘순환 경제법’은 외국 기업에만 해당하는 법은 아니지만 중국의 환경 친화적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관리강화를 비롯한 환경규제 강화, 고용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중국의 비즈니스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중국 정부의 움직임으로 한국 기업의 피해는 심화될 전망이다.

자동차 부품과 컴퓨터 부품의 경우 주로 재중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하고 있어 중국 내수와 관계없이 진출기업의 생산량 감소로도 대중 수출이 부진할 수 있다. 예컨대, 컴퓨터 부품은 심양의 삼보컴퓨터의 생산중단으로, 그리고 자동차 부품은 국내기업의 CKD³⁴⁾수출 포기과 중국 진출 완성차 업체의 일괄생산 체제 가동으로 관련 부품의 대중 수출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지의 판매 어려움으로 인해 수송 기계제품, 컴퓨터 및 사무기기의 역수입이 확대되고 있다³⁵⁾.

34) Complete Knockdown: 완성품 조립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수출하는 것이다

35) 영호(2013): 「한중 FTA 체결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논문, pp.52-53.

제5장 FTA 체결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및 대응 방안

제1절 한중 FTA 체결내용

2014년 11월 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을 타결했다. 한국은 유럽연합(EU), 미국에 이어 3번째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다. 세계 10대 교역 국가 중 글로벌 3대 경제권과 모두 FTA 맺은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지난해 한국과 중국 간 교역 규모는 2289억 달러이며 한국 수출과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한중 FTA는 그만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³⁶⁾.

중국상대로 수출이 많은 석유화학, 제조업과 수요 증가로 인한 항공업계 등은 크게 반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수산물과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로 인한 철강 등은 피해가 우려 된다. 중국이 처음으로 개방 항목에 포함시킨 금융, 통신, 엔터 테인먼트, 유통 부문 등에서는 한국 기업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와 자동차 등 덩치 큰 산업은 이미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한 상태라 별 영향 없을 것으로 보인다.

1. 상품 분야³⁷⁾

가. 관세장벽 완화

농수산물, 영세 중소기업 등 민감 분야에 대한 보호와 함께,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주력·유망 수출 품목의 시장 접근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양허 협상 결과 도출했다.

철강(냉연·열연·도금강판 등)·석유화학(프로필렌·에틸렌 등) 등 일부 주력 소재 제품에 더하여, 패션(의류·악세서리 등),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의료기기 등), 고

36) <http://blog.naver.com>, 「한중 FTA 체결, 쌀은 협정대상에서 제외」

37) <http://fta.go.kr>,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 한중 정상회담(11.10)에서 공식 선언, PP.7-8.

급 소형 생활 가전(밥솥·믹서 등) 등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중소기업 제품들이 對中 특혜 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여, 급성장하는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표 13>한·중 FTA 한국측 농산물 양허결과

양허유형	세번수	비중(%)	주요 품목
즉시 철폐	216	13.4	소(육우/젖소/기타), 오리(기타/번식용), 돼지(번식용), 대두(종자/분/조분), 시탕수수당밀(주정제조용), 돈지(기타), 가금지(기타), 팜유와 그 분획물 기타, 토마토 종자, 양모(기타/탈지), 박류(밀), 양배추 종자, 겨자씨, 생모피(기타), 아자유 기타, 당밀(기타/주정제조용), 라드유, 무 종자, 아자유(조유), 채소종자(기타), 호밀(기타) 등
5년 철폐	290	13.0	해바라기씨유(조유/기타), 조제식료품(오트밀/유아용), 우황, 파스타(기타), 옥수수박, 식혜, 사향, 사탕무, 건빵, 밀(기타), 면실유(조유/정제유/기타), 대두유(정제유/조유), 사탕수수, 스파게티, 양조식초, 라면 등
10년 철폐	164	10.2	꼬냇, 흰포도주(기타), 코코넛(기타/말린 것/미탈각-내과피), 베이커리제품(기타), 샤프란, 스위트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소나무(분재용), 붉은포도주(기타), 보드카, 마요네스, 아몬드(탈각) 등
소계	589	36.6	
15년 철폐	202	12.5	해바라기씨유(정제유), 팜핵유(정제유), 카레, 올리브(설탕저장처리/조제저장처리/일시저장처리), 아이스크림(기타), 쇼트닝, 사과주, 바나나(기타/플랜틴), 망고스틴(신선/건조), 마가린(액상제외), 두리언(신선), 구아버(신선/건조), 파인애플(조제저장처리/설탕저장처리), 망고(신선/건조), 팝콘(조제저장처리), 커피 크리머, 겨자(겨자의분/조분), 소시지(기타), 배합사료(축우/양돈/양계/어류/기타), 토마토페이스트, 스위트콘(조제저장처리/설탕저장처리/냉동) 등

20년 철폐	11년차 부터 감축	2	0.1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기타과실(잼, 젤리, 마말레이드 기타)
	13년차 부터 감축	1	0.1	기타한약재(기타식물 - 향료, 의료용 등)
	20년차 부터 감축	236	14.6	도라지(신선/냉장), 매니옥(냉동), 데어리 스프레드, 소주, 맥주, 낙화생유(조유/정제유/기타/그 분획물), 인삼음료, 기타채소(설탕저장처리), 채소류의 혼합물, 춘장, 콩(기타/설탕저장처리), 유장(기타/사료용) 등
소계		441	27.4	
TRQ		7	0.4	참깨, 팥(건조/기타), 대두(기타/콩나물용), 사료용 식물성 부산물 기타, 맥아(볶지 않은 것), 전분(고구마의 것), 대두(기타/기타)
부분 감축	20% 부분감축 (평균)	11	0.7	김치(조제저장처리), 혼합조미료, 기타소오스, 팥(탈각/조제저장처리), 당면, 고사리(건조), 들깨, 당류(기타), 낙화생 기타(조제저장처리), 송이버섯(냉동), 기타 채소(조제저장처리)
	30%로 감축	15	0.9	매니옥(신선/냉장/기타/건조), 매니옥칩(건조), 매니옥펠리트(건조), 밀(펠리트/분쇄물/조분), 스위트콘(기타/건조), 옥수수(종자용), 귀리(압착플레이크/분쇄물/조분/가공곡물), 양-디오스코레아종(기타), 토란-콜로카시아종(기타), 아메리카토란-크산토소마종(기타)
양허 제외		548	34.0	쌀, 보리(겉보리/쌀보리), 팝콘용 옥수수, 감자(식용/냉동건조/칩용/감자분), 쇠고기(신선/냉장/냉동/식용설육), 돼지고기(냉동삼겹살/냉장삼겹살/냉장기타/돼지족/밀폐가공품), 닭고기(냉동가슴/냉동날개/냉장육/닭고기가공품), 분유(탈전지분유/연유/조제분유/혼합분유), 치즈(신선/가공/기타/체다), 버터, 꿀(천연/인조), 감귤류오렌지(온주감귤/맨더린/탠저린/오렌지), 사과배포도, 키위, 호박, 고추(신선/냉장/건조/냉동), 마늘(신선/냉장/일시저장/건조/냉동), 양파(신선/냉장/건조/냉동), 인삼류(뿌리삼류, 기타가공품) 등
소계		581	36.1	
총 합계		1,611	100.0	

자료:자료:FTA강국 KOREA

<표 14>한·중 FTA 중국 농산물 양허결과

양허유형		한·중 FTA		주요 품목
		세번수	%	
일반 품목	즉시	221	19.5	사료용 조제품, 잼·과실제리, 채소 종자 등 단백질계 물질, 양모, 수모, 생사, 가축원피, 냉동 오렌지 쥬스, 볶지 않은 커피 사과·배·포도·복숭아·딸기(신선), 쇠고기·돼지 고기·닭고기(냉동), 소시지, 볶은 커피, 물 등
	5년	65	5.7	
	10년	439	38.8	
소계		725	64.1	
민감 품목	15년	203	17.9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신선), 파스타, 과일주스, 채소주스, 천연꿀, 가공치즈 등 김치, 무알콜 음료, 기타 조미료, 인스턴트 면류, 커피 조제품, 곡분 조제품, 간장, 발효주, 냉동 오리고기 등
	20년	101	8.9	
소계		304	26.9	
초민 감 품목	부분감 축	1	0.1	기타 조제식료품(20%→18.4%)
	양허제 외	101	8.9	쌀, 설탕, 건조 인삼, 밤(미탈각), 식물성 유지, 밀크와 크림, 밀, 밀가루, 당류 등
소계		102	9.0	
총합계		1,131	100.0	

자료:자료:FTA강국 KOREA

나. 각종 비관세장벽 완화

중국내 각종 비관세장벽 및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손톱밑 가시’ 해소에 역점을 두어 한국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在中 주재원 최초 2년 이상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발급 부여, 700불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면제, 48시간내 통관 원칙, 특송화물 면세 서류 최소화, 세관집행의 일관성 증진, 중국 정부 내 한국 기업 애로 해소 담당 직원 지정 등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동시에, 식품, 화장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상호 인정 관련 협력 강화,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시험·인증기관 설립 지원, 시험 샘플 통관 원활화 등 기술장벽 및 시험·인증과 관련된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한다.

또한, 수입허가 관련 신규·수정 조치 공표 의무(미공표시 적용 제한), 비관세조치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를 통해 관련 규정 제·개정시 한국 기업의 법규 대응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양국 정부가 비관세조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각종 비관세조치 관련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중개(mediation)³⁸⁾ 절차를 도입하는 등 비관세장벽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에도 노력하였다.

2. 상품 관련 규범 분야³⁹⁾

첫째, 원산지 판정의 기본 원칙, 특혜관세 신청 절차, 관세위원회 등이 규정됨에 따라 상품 교역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 규정 및 절차가 수립되어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이다. 특히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700 이내), 특혜관세 사후신청 규정으로 인해 기업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둘째, 당사국의 관세법령이 전국적으로 일관성있게 이행되도록 보장하고, 비일관적인 문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마련을 명문화함으로써, 한·중 양국에서 관세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한국 수출기업들이 흔히 겪는 통관 관련 애로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상품의 반출에 관해 전자적 서류 제출, ‘48시간내 통관’ 원칙 및 ‘부두 직통관제’를 명시하고 특송화물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별도절차가 적용되도록 함에 따라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된다.

셋째,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마련하여 한·중 FTA 양허로 인한 국내기업 피해 구제가능성을 확보하고 상호 세이프가드 남용방지 조항을 통해 수출기업의 예기치 않는 피해를 방지한다.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시점(7일전)을 명확히 규정하여 상대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가격 약속 고려 및 협의규정을 통해 최종 조치 판정에 이르지 않도록 상호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여 무역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이다.

넷째, WTO/SPS 협정 적용 재확인, 위생검역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협정 이행을 위

38) 양측은 중개인의 도움을 통하여 합리적 기간 내 신속한 방식으로 상호 동의할 만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해결책 이행을 위한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39) <http://fta.go.kr>,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 한중 정상회담(11.10)에서 공식 선언, PP.9-10.

한 위원회 설치 등 최소한의 내용 위주로 규정하고,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지역화 조항 등이 불포함되어 WTO/SPS 협정 이상의 추가적인 의무부담 없이 타결이다.

다섯째, 국제공인 성적서 상호수용 촉진(전기용품),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협상개시(전기용품, 자동차 부품), 허가 신청 절차시 내국민 대우 부여(화장품, 의약품) 등을 통해 시험인증과 관련된 구조적 애로 해소에 성공하여 국내기업의 對중국 수출이 보다 용이해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이다.

3. 서비스 및 투자 분야⁴⁰⁾

첫째, 중국내 법규·제도 정비에 상당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 FTA는 포지티브 자유화방식(개방분야 열거)에 따른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 보호를 우선 규정하고,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원칙적 개방, 미개방분야 열거)⁴¹⁾에 따라 후속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다.

둘째, 중국으로서는 최초로 금융 별도 챕터를 수용하였으며, 금융 투명성 제고(금융 관련 규정 사전 공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등), 금융 관련 ISD 제기시 금융 건전성 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금융 당국간 사전 협의 근거 조항에 합의하고, 금융 서비스 위원회 설치를 통한 금융 당국간 별도 협의 채널도 확보함이다.

셋째, 투명한 경쟁 보장 장치 확보(상대국의 망·서비스에 비차별적 접근 보장), 중국 내 통신 규제 관련 무역장벽 완화(비차별적 상호접속 제공 의무, 교차 보조 금지 등)를 통해 양국간 통신 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중국이 통신을 별도 챕터로 다룬 최초의 FTA라는 점도 의의이다.

다섯째, 상용방문자, 기업내 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일시 입국과 체류 허용 요건 등을 규정하였으며, 비자 원활화 부속서를 채택하여 在中 주재원 최초 2년 주재(당초 1년)로 확대하는 데 합의하는 등 중국내 한국 기업 활동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함이다.

40) <http://fta.go.kr>,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 한중 정상회담(11.10)에서 공식 선언, PP.10.11.

41) 중국 FTA 최초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

4. 규범 및 협력 분야⁴²⁾

첫째, 경쟁 투명성, 절차적 공정성, 비차별 원칙 등 경쟁법 집행 원칙⁴³⁾ 보장, 공기업 등에 대한 경쟁법 적용 의무 규정, 경쟁 당국간 협력 의무 등을 규정한다. 특히, 상대국 정부의 반독점행위 조사시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법집행 방지 등 한국 기업 보호 장치 마련하였고, 중국 국유기업에 대해서도 경쟁법상 의무가 적용되도록 하여 중국내 한국 기업과 중국 국유기업 간에도 공정 경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강화할 수 있다.

둘째, 실연자 (per former), 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기술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보호를 명문화했으며, 방송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그간 중국 법체계 미비로 반대해 왔던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등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음반·방송사업자)’을 강화하여 중국내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이다. 지재권 관련 판결, 법령 등을 공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손해액 입증 용이성 제고, 지재권 침해물품의 압류·폐기 명문화 등 지재권 집행관련 규정강화를 통해 위조, 불법복제 등으로 인해 권리침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 장치를 확보이다.

셋째,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다자환경협약 준수, 환경법 집행 (non-derogation⁴⁴⁾ 포함) 등 핵심 의무 조항들을 규정하고, 환경협력 강화 약속 및 환경위원회 설치를 규정한다. 특히 환경 챕터 적용 범위를 당사국(지방정부 포함)의 환경법, 규정, 조치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중국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환경법, 규정, 조치의 효과적 집행 및 다자환경협약 준수 등 측면에서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중국의 FTA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독립 챕터로 설치했으며,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 유지, 전자인증·서명, 개인정보보호, 종이없는 무역 등을 비강행 규정(실질적 권리·의무 미발생)으로 반영하여, 향후 양국간 디지털콘텐츠 교류 활성화 및 전자상거래 촉진 기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섯째, 양국의 관심분야를 고려, 다양한 협력⁴⁵⁾을 포괄하여 양국간 협력을 제도화하기

42) <http://fta.go.kr>,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 한중 정상회담(11.10)에서 공식 선언, PP.11-12.

43) 관련법령, 조사절차 규칙 및 심리의결의 공개, 의견진술권, 증거제출권, 재심청구권 보장, 경쟁법 집행시 상대국 국민에 대한 내국민 대우 준수.

44) 무역이나 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법, 조치상 보호수준 약화 금지.

45) 1. 산업협력(철강, 중소기업, 정보통신, 섬유), 2. 농수산협력, 3. 정부조달(추가협상 포함), 4. 기타협력(에너지자원, 과학기술, 해상운송, 관광, 문화(방송 포함),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지방

로 했으며, 각 분야별로 협력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중 FTA를 토대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 전개 등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전망한다.

제2절 양국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1.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가. 지속적인 무역 불균형의 감소⁴⁶⁾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의 무역거래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무역수지의 불균형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한·중 간 무역수지 불균형에 대한 원인을 한국 기업의 생산과 가공을 중국으로의 이전하는 점과 한국은 중국에 고부가가치의 첨단기술제품을 수출하는 반면 중국은 한국으로 농산물, 방직품 등 저가 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점에서 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이 무역흑자로 자본재를 한국 기업이 공급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한·중의 기술 격차가 유지되는 한 이와 같은 무역흑자 현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⁴⁷⁾.

나. 원부자재 조달의 현지화⁴⁸⁾

한국의 대 중국 수출품의 약 80%가 한국 투자진출 기업 및 여타 외국인 투자 기업체에 중간재로 공급되는 원부자재이다. 최근의 중국의 중간재 제품이 점차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보유함에 따라 원부자재의 수입 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부품 조달 현지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이 중국 진출 초기의 한국산 원부자재의 수입에서 벗어나 원부자재 조달을 현지화하고 있다. 2006년 KOTRA 보도에 따르면 현재 원부자재 조달비율은 중국(52.7%) 한국

협력) 등으로 구성.

46) 영호(2013), 「한중 FTA 체결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논문, p.49.

47) 정환우(2008), 「2008년 한중간 가공단계별 교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경제연구원, p.30.

48) 영호(2013), 「한중 FTA 체결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논문, p.49.

(37.8%), 제3국(9.5%)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조달 비중은 중국 진출 초기의 44.8%에서 2006년 37.8% 하락하였고, 향후 원부자재 조달 계획 역시 현 상황을 유지(46.8%)하거나 중국 위주로 변경(51.2%)하겠다는 응답이 높아 앞으로는 부품 및 소재의 대중 수출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대 중국 투자증가는 초기 단계에서는 원부자재수출의 증가를 초래하다 점차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고 중국 생산업체 경제력 상승과 함께 중국에 진출한 외국 투자업체가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원부자재를 중국 내에서 현지 생산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한국산 수입 원부자재 사용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역시 2009년 말 전체의 34%에서 2010년 1사분기에 42%로 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진출 한국 기업들의 63%가 중국 내에서 원부자재 조달을 고려중인 것이다.

다. 관세구조 및 기술이전 효과에 따른 교역량 증가⁴⁹⁾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전자, 석유화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양국 간의 FTA 체결은 한국의 첨단 산업의 중국진출을 확대하고 이는 현지에서 이와 연관된 산업의 창출과 중국내 산업화를 촉진하여, 양국 간 경제 결합도 및 상호의존도를 심화하게 될 것이다. 이는 기반산업에 대한 기초 및 중간 생산재의 유통을 활발히 할 것이며, 생산재의 유통과 더불어 경영관리를 위한 인적 교류와 장기적으로는 이에 따르는 기술협력이 유발되어 양국 간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자명하다.

중국은 WTO 가입 후 자동차부품에 대해 수입허가증 및 수입쿼터를 폐지하고 2004년 6월 발표한 신자동차산업 발전정책으로 수출 촉진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부품의 대 중국 수출 비중은 2003년에 23%이며 현대·기아차의 현지 생산이 본격화 되면서 대중 부품 수출은 2003년 9억 4천만 달러, 2004년에 17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주로 기어박스, 운전박스, 자동구동차축들을 수출하고 대중 부품 수입은 시계, 오디오, 스피커 등 저부가가치의 비 핵심 상품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현재 80여개 업체 100개 법인이 단독 투자 또는 합작의 형태로 북경과 강소성, 산둥성 등에 진출하여 투자하고 있다.

49) 영호(2013), 「전계논문」, p.50.

중국의 자동차 생산은 2010년경 1200만대에 달할 전망으로 자동차 부품시장도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한국부품 업체는 중국 내 완성차업체와 전 세계로 진출할 계기로 삼고 있다. 2010년경 현대, 기아 차의 생산체계가 1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품업체의 투자는 크게 증가 될 것이다.

중국의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율이 한국보다 높고 비관세장벽도 유지하고 있어 FTA에서 이것이 중국이 급속도로 경쟁력을 갖추어 한·중 간 산업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경쟁력 없는 노동집약적부품은 현지 진출이 확대되거나 중국으로부터 수입으로 급격히 산업 공동화가 진행되거나 사양화 될 전망이다.

한·중 FTA 체결은 양국 간 관세의 철폐로 자동차부품 산업의 교역이 활발할 것이고 저생산성의 저부가가치 품목은 중국의 추월이 예상되며 고부가 제품은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비관세 장벽인부품수입에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 수입이 완성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핵심부품 수입관리법안’을 쉽게 철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체결이 시장 통합으로 인해 저부가가치 품목의 생산기지는 급속히 중국으로 이전될 것이고 한·중 양국은 기술력 격차에 따른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본 기술 집약적인 부문에, 중국은 노동집약적 부문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ABS⁵⁰⁾, EGI⁵¹⁾ 시스템, 서스펜션, 피스톤, 오일펌프 등 기술수준이 앞서고 있으나 오디오 기계 등 노동집약적 부품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설비를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중국시장이 한국제품을 모방한 유사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 중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가. 원화 강세 또는 환율의 영향⁵²⁾

최근 원화 강세는 대중 수출 증가율 둔화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대중 무역흑자가 감소된 2006년 중국 위안화에 대한 한국 원화는 7.4%평가 절상 되었으나, 일본 엔

50) 자동차가 급제동할 때 바퀴가 잠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특수 브레이크장치이다

51) Electronic Gasoline Injection로 전자제어식 연료분사장치이다.

52) 영호(2013), 「한중 FTA 체결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논문, p.53.

화와 대만 달러 경우 각각 20.6%와 2.4%평가절하 되었다. 또한, 원화 환율은 2001년 이후 미국 달러, 중국 위안화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절상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국 위안화에 대한 한국 원화는 2001년 155.8원에서 2006년 119.3원으로 평가절상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수출 가격 경쟁력은 주요 경쟁 대상국인 일본과 대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6년 중국의 대 일본 및 대 대만 수입 증가율은 전년대비 각각 8.6%와 1.4%증가하였으나, 대한국 수입증가율은 전년 대비 6.9%로 둔화되었다. 이러한 원화의 상대적 강세는 부품 및 소재의 대 중국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원인의 하나로도 추정되고 있다⁵³⁾.

나. 관세 및 비관세 장벽⁵⁴⁾

중국은 WTO 가입 양허 안에 대한 이행을 지속한다는 차원에서 2006년 11월 1일부터 58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 조정하는데 이어 2007년 1월 1일부터 HS28)코드 8단위 기준 44개 세목의 최혜국 세율을 다시인하였다. 농산물과 공산물의 평균관세율이 각각 15.2%와 8.95%에 달하고, 중국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WTO 가입 당시 15.3%에서 2007년 9.8%로 5.5%인하되었다.

상당수 품목의 수입관세율이 중국의 WTO 가입 양허안 내용에 부합하고 있지만, 당초 중국이 WTO가입 양허 안에서 9.4%에는 미치지 못하는수준이다. 현 중국의 관세 수준은 개발도상국 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선진국 수준(3.9%)에 비해 크게 높기 때문에 2010년 까지 수입관세율 인하를 단계적으로 지속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은 수입관세 이외에 13-17%의 부가가치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세(담배30-45%, 주류 5-25%)도 부과한다. 특히 아직도 자동차부품과 철강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증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방직수출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쿼터제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관세 장벽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많이 설치하였다. 예를 들어 반덤핑, 기술장벽 TBT, 검사·검역조치(SPS)⁵⁵⁾ 및 기타 비관세장벽을 중국산 제품의한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장벽들을

53) KIEP(2007), 「2006년 대중 무역 흑자 감소의 원인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13.

54) 영호(2013), 「한중 FTA 체결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논문, p.53.

55) SPS: 우루과이라운드가 출범 될 당시, 미국이 각국에 개발적인 협정안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하여 만들어진 협정이다.

설치하고 있다.

기술적 무역장벽은 중국의 대 한국 수출 상품에 대해 큰 위협이 되고있다. 한국의 기술적 무역장벽에 큰 양향을 받는 대 한국 수출 상품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식품 및 식품 첨가제, 의약 및 의약 원료 등으로그중에서 신선한 과일, 돼지고기나 소고기 등 고기류 제품 및 약품은 정상적으로 대 한국 수출이 금지되고 있다. 한국 측은 위와 같은 제품에 대한 수입은 주로 검사, 검역 규제 및 안전 표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 중국의 생산능력 증대

2001년 이후 중국내 외국인 직접투자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전자통신설비, 일반기계, 전용설비, 광학부품 등 하이테크 제조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생산능력이 확충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생산능력 확대에 따라 대중수입이 확대되는 품목은 IT관련 제품이며,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품목은 합성수지이다. 또한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잉여물량의 수출증가는 철강제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IT산업의 생산 확대로 2004년과 2005년 중국의 반도체생산증가율은 각각 23.9%와 344.7%, 휴대폰 생산증가율은 각각 30.0%와 58%를 기록한 바 있다. 이러한 중국의 IT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따라 관련 중국산 제품의 대 한국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중복 과잉투자로 인해 공급과잉이 발생함에 따라 잉여물량의 대 한국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품목은 철강제품으로, 중국의 철강 산업은 2000년대 들어 폭발적인 설비 능력 증가로 2005년부터는 공급과잉으로 전환되어 철강수입은 급감하는 반면, 수출은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철강제품은 중국의 공급과잉 심화에 따른 잉여물량 수출을 크게 늘린 결과 한국이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의 위치(중국 철강 수출 중21%점유)를 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중국 내 수입 금감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제3절 FTA 체결에 따른 양국의 대응 방안

1. 중국의 대응 방안

가. 자동차 분야⁵⁶⁾

자동차에 대해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중·한간 FTA 체결시 중국은생산과 수출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증가폭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수출은 장단기 모형 모두 6%대를 나타냈으며, 수입은 2%대를 나타내 수출이 수입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중·한 FTA 체결시 중국 자동차산업은 자동차 수출 증가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경우에 대한중·한 FTA가 체결되면 관세 양허, 투자보호수준 강화 등으로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한국은 물론 여타 선진국들로부터의 외국인직 접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는 중·한 FTA 체결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됨으로써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등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정책투명성이 제고되는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차별화된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선 한국과의 경우, 對한 수출 경쟁력이 높고 인적 자원 등 산업기반이 우수한 부문의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다음으로 일본 및 러시아등을 대상으로는 국내시장의 상대적 경쟁력이 약해지거나 한국시장 진출을 겨냥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원과 마케팅전략등 대비책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나. 철강 분야⁵⁷⁾

중·한 FTA 체결시 철강산업은 생산을 감소하고 수출과 수입을 모두 증가하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늘어난다는 면이 있다. 중국 철강업체가 한국제품의 수입급증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내 고급화를 추구하여 한국제품과의 차별화를 도모

56) 단배배(2010), 「중·한 FTA 체결이 중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통상학과, 석사논문, p.62.

57) 단배배(2010), 「전계논문」, p.65.

해야 한다. 차별화의 홍보전략을 통해 원래 한국에서 잘 판매된 제품들이 수출량을 증가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설비 개선과 더불어 신제품 및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수반 되어야한다. 대한 수출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국 철강업체는 이미 한국에 진출하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중국철강 수요업체와 공급관계를 확대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값싼 중국산 점용성 철강제품은 대한 수출급증세가 되고 있다.

다. 섬유 분야⁵⁸⁾

현지 중국 의류생산은 주로 자기상표가 아니라 외국 유명한 브랜드의 주문자가 요구하는 디자인으로 부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며(OEM 방식) 고부가가치 내수시장은 외국브랜드가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내 임금인상과 국내와 국외 경쟁심화로 인해 중국내 섬유 의류기업이 구조조정에 직면되고 있다.

중국 섬유 의류산업의 구조조정 문제는 여러 요소를 망라하며, 여러 각도에서 공동 노력하여야 한다.

첫째, 시장 조류에 순응하여 제품 구조를 조정하여야 한다. 국내외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섬유 의류 기업은 다경로, 다원화 발전을 시장 수요 조정에 대한 개념으로 하여 내수와 수출을 병행하고, 중국 대한 의류수출의 변화 상황 하에 적극적으로 내수 시장을 배양하고 개척하여야 한다.

둘째, 발전 방식과 기업의 경쟁 관계를 전환하여야 한다. 섬유 의류기업은 생산능력 확장을 위주로 한 발전 방식을 전환하고 핵심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제품 무역의 성장 방식은 과거의 과도한 가격 경쟁에서 전환하여 품질, 브랜드, 디자인으로 한국 섬유 의류의 시장을 점하고 기술과 브랜드로 제품 부가가치를 향상하여야 하며, 또한 경영관리 혁신을 가속하여 섬유 의류업의 양에서 질로의 전환을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섬유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업계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분야는 과감히 축소하고, 대신 중국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산업용 섬유와 같이 미래 성장유망분야에 한정된 경영자원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업계는 FTA를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58) 단배배(2010), 「전계논문」, p.68.

넷째, 올림픽, 세계박람회 등 국제 행사를 통해 중국 브랜드를 홍보하여야 한다. 국제 행사나 홍보전략을 통해 중국산 브랜드가 싼값을 유지하면서 좋은 디자인과 품질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한국국민을 알려주고 제품을 선택하게 만들어야 한다.

2. 한국의 대응 방안

가. 농업 분야

농업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쌀 같은 곡물류를 제외하고 기술집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인 원예·과수 분야에서는 단순히 수세적인 입장외에도 해외시장을 겨냥한 공격적인 전략 수립으로 국내 농산품의 경쟁력확보와 동시에 수출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우선 정부 주도의 가격지지를 시장 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곡수매제도를 개편하여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WTO 체제 출범 이후 수매보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양곡수매제도의 소득지지 효과가 크게 약화되었다. 특히 쌀 보조가능액(AMS)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쌀 수매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는 수매 제도를 WTO가 허용하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로 전환하고 적정재고 600만 석을 기준으로 매년 일정량을 시가로 매입, 방출할 예정이다⁵⁹⁾.

나. 제조업 분야

제조업 6개 산업의 쟁점에서 밝혀진 것은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주요 산업은 중국의 강한 가격경쟁력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과제가 더욱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가격 경쟁력과 노동력으로 밀고 들어오는 중국의 수입 의존도는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국 제조업 전반의 대응방향은 각 산업의 발전단계, 기술 및 경쟁력 수준, 수출입 상황 등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설정이 쉽지않다.

59) 류명명(2008), 「한중 FTA 추진에 따른 경제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지역경제학과, 석사논문, p. 79.

한중 관계에서는 과거 일본이 수출과 직접투자를 통하여 한국시장에 진출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은 지금까지 중국의 부상이 주는 기회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의 다국적기업이 중국을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지와 시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중국의 산업고도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중국은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제조업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특히 섬유산업의 의류부문은 국제경쟁력 약화로노후설비 폐기, 해외이전, 지속적인 구조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컴퓨터는 조립공정이 대부분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으로 이전되고 주로 관련부품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백색가전을 비롯한 일부 전자제품과 철강제품 등에서도 중국의 약진으로 한국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중국 산업고도화의 속도로 볼 때 이러한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된다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에 협상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조업에서는 여기에서 도출된 도출하여 관세양허 협상의 초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 협상시에는 민감품목을 더욱 세분화하여 하부단위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 또는 인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품목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원천기술 및 핵심기술의 확보를 위한 국내외 기업과의 기술제휴 및 R&D 투자의 확대, 제품의 고부가 가치화 및 차별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신제품, 신공정 및 새로운 디자인 등의 개발에 의한 시장 선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의 강화를 통한 소재 및 부품의 기술수준 제고, 전문 기술인력의 양성, 지속적이고 원활한 구조조정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제조업 전반의 대응방향이 될 것이다.

향후 한중 FTA가 체결되어 양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 또는 완화된다면 양국의 시장통합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중국을 기반으로 하여 경쟁력이 강화된 다국적 기업의 제품과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⁶⁰⁾.

다. 서비스업 분야

60) 류명명(2008), 「전계논문」, pp.86-87.

현재 한국과 중국은 서비스부문 자유화를 통하여 서비스산업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규제 완화 및 독점 제거, 가격 자유화, 인력 양성, 경쟁 촉진 등이 강조되고 있다. 서비스 자유화로 기대되는 이익은 서비스 자유화로 나타나는 해외시장 접근의 개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 및 효율 증대에서 찾을 수 있다. 환언하면, 서비스 자유화의 이익은 해외시장에 대한 수출장벽 제거에서 오는 이익이 아니라 국내외 모든 기업의 서비스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국내 개혁과 경쟁체제 도입에 있다는 것이다.

한중 FTA를 통한 서비스산업 부문의 개방은 양국의 후생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답보상태를 보이는 WTO의 서비스협상보다 앞서 더 깊고 범위가 넓은 자유화를 목표로 추진하여야 한다. 비슷한 문화적 배경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갖는 한중은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통한 경쟁의 도입으로 서비스 비용과 가격을 낮추어 서비스부문의 효율 제고를 도모하고 혁신시키는 동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폭을 넓혀야 한다.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생산자서비스 및 인프라서비스를 중간 투입 요소로 활용하는 여타 서비스 및 상품 부문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요약한다면, 한중 양국은 FTA를 통한 적극적인 서비스 자유화가 필요하며, 이 자유화는 한중 양국의 서비스부문 경쟁력 향상은 물론 상품부문의 경쟁우위 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⁶¹⁾.

61) 류명명(2008), 「전계논문」, pp.99-100.

제6장 결론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2002년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산업 정책분과위원회에서 중국측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05년 민간공동연구, 2007년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이루어졌고, 2010년 5월 한-중 FTA 관련 공동연구가 종료되면서 같은 해 9월부터 정부 간 사전협의를 진행되었다. 2012년 5월 마침내 한-중 FTA의 공식협상이 시작되었다.

중국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수출 증대, 생산, 고용, 투자 효과를 예상한다. 한국과 FTA를 추진할 경우 다른 선진국들보다 제도개선과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면에서 기대가 크다. 한국 역시 양국 간 교역규모,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인해 한-중 FTA에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한국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볼 때, 중국과 같은 큰 수출시장의 관세인하 혜택과 제도적 안정성 확보에 따른 수출 확대 효과가 극대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하지만 값싼 중국산 완제품과 농수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경우 국내 중소기업과 농수산업 피해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

중-한 FTA 구축은 실무적인 태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상력이 필요하다. 중-한 FTA가 중-한 양국의 지리적 정치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양국 국내정책과 정부의 국내 경제발전 방안은 FTA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전제요인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국 측에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경제제도의 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해야 하며, 한중 FTA 추진과 아울러 공동화 될수 있는 제조업 분야에 대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노력도 병행되도록 함으로써 FTA의 경제적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경훈(2011), 「글로벌 무역실무」, 두남출판사.
- 곽덕환(2011), 「동아공동체와 한중일 FT」,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고준성(2003), 「자유무역협정의 법적고찰」, 서울법무부.
- 김규진(2010), 「중·한 FTA의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호(2009), 「중·한 경제관계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봉철(2004),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서울 인텔에듀케이션.
- 김성순, 이대퇴(2008), 「한국기업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단국대학교, 산업연구소.
- 김성훈(2011), 「중·한 FTA 체결의 필요성과 경제적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 천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영, 신상식(2007), 「FTA 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출판사.
- 김세영, 안병민, 최명식(2009),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체결 가능성」, 韓國貿易學會.
- 김정수, 최학수(2009), "중·한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제통상연구」 제14권 제1호.
- 김준동(2003), 「중·한·일 FTA금융서비스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화년(2010), 「녹색제품협약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삼성경제연구소.
- 낙임용(2002), 「한국 대중투자 특징분석 및 건의」 [期刊論文]-국제경제연구.
- 남영숙, 이창수, 지만수, 정인교(2004),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념총제(2010), 「중·한 양국 무역과 투자 특성에 따른 FTA 가능성 고찰」,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단배배(2010), 「중·한 FTA 체결이 중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명명(2008), 「중·한 FTA 추진에 따른 경제적 대응방안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홍석(2010), 「한중일 FTA의 가능성과 한계」,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손조군(2014), 「한·중 FTA 협상성공전략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국제무역학과, 석사논문.
- 송원근, 최남석(2012), 「중·한 FTA 협상, 정교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국경제연구원.
- 양평섭(2009),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 추진 방향」, 조선대학교 동아시아경제연구소.
- 염 호(2013), 「한중 FTA 체결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왕봉안(2011), 「중·한 FTA추진의 무역구제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옥영(2012), 「중·한 무역 장벽과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외교토상부(2012.9): 「한중간 교역현황 및 중국 교역현황」.
- 유형철(2012), "중·한 수교 20주년 새로운 20년을 준비한다", 「나라경제」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장.
- 이경희(2013), "알기 쉬운 세계 각국이 FTA를 경쟁적으로 체결하는 이유." 「함께하는 FTA」 5월간.
- 이상환(2010), 「한-중-일 FTA의 현황과 전망 :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韓國世界地域學會.
- 이장규 외(2006), 「중국의 FTA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충배·노진호·서윤희(2011), "중·한 FTA의 경제적 효과와 양국의 FTA추진전략 비교." 「관세학회지」, 제12권 제1호.
- 이희옥(2008), 「한중 FTA와 동아시아 지역주의」 풀빛출판사.
- 정일구, 이제홍(2006),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성공조건과 추진 타당성 분석」, 한국창업정보학회. 제9권 제2호.
- 정환우(2011), 「동아시아 경제통합 관점에서 본 한중 FTA의 의의와 과제」
- 조수란·최해범·신성식(2010), "중·한·일 FTA의 타당성 및 무역효과에 관한연구." 「관세학회지」. 제11권 제3호.
- 지만수, 박현정(2005), "중국 제11차 5개년 계획 건의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세계경제」, 제8권 제11호.
- 진병진(2008), "중·한 FTA의 필요성과 추진정책 연구." 한국동북아학회 제8권 제3호.

- 진 희(2014), 「중·한 FTA 추진현황과 전략」, 배재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학과, 석사논문.
- 최정석(2013), 「한중 FTA협상 진행현황과 향후 전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조교수.
- 허홍호, 정윤세(2009), 「한중 FTA에 대한 한중 양국의 입장」, 韓國經營史學會.
- 홍진영(2011), 「중·한·일 현시비교우위와 산업내 무역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丁 斗(2001), 「東北亞地區的次區域合作」, 北京大學出版社.
- HAO YING WEI(2014), 「한중 FTA의 기대효과와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경제통상학과, 석사논문.
- KIEP(2007), 「2006년 대중 무역 흑자 감소의 원인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타 참고문헌 및 홈페이지 자료

한국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new/index.asp>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지식경제부: <http://www.mofe.go.kr>
 한국수출은행: <http://www.koreaexim.go.kr>
 중국상무부: <http://www.cei.gov.cn>
 중국인민중앙정부: <http://www.gov.com.cn>
 중국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
 중국상무부 FTA 사이트: <http://fta.mofcom.gov.cn>
 한국통계청: <http://www.kostat.go.kr>
 FTA무역종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main.do?method=index>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사이트: <http://www.fta.go.kr/>
 전국경제인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fri.or.kr
 중국국무원발전연구중심: http://lw.3edu.net/mylw/lw_41173.html
 중국자유무역사이트: <http://fta.mofcom.gov.cn/>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산업연구원: www.keit.re.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中国商务部: www.mofcom.gov.cn
 中国统计局: <http://www.stats.gov.cn/>
 FTA강국 KOREA: <http://fta.go.kr/main/>

